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안 홍 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여고생의
피부 관리 관련 요인 분석

2011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피부비만관리학전공

신 지 현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여고생의 피부 관리 관련 요인 분석

안 홍 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피부비만관리학전공

신 지 현

認 准 書

신지현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배현숙 (배)

審査委員 이은혜 (이)

審査委員 안홍석 (안)

誠信女子大學校 文化産業大學院

논문 개요

청소년기의 여고생은 보통 17세 ~ 19세 사이로 변화되는 용모에 대한 관심과 민감해지기 쉬운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발육·발달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여고생의 피부 상태는 성호르몬 분비가 왕성하고 피지분비량이 많아져서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이 동반되기 쉬워지며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피부 미용에 관련된 무분별한 정보로 자신의 피부상태를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여 잘못된 피부 관리가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피부상태에 따른 적합한 피부 관리 습관의 확립과 건강하고 효율적인 피부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고급화, 전문화, 세분화된 정확한 지식과 피부 건강관리를 위한 태도와 행위가 실천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피부 관리의 선호도 및 피부 관리 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건강신념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피부 관리의 올바른 방법과 피부 지식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여자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재학 중인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으로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369부를 분석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분석, logistic 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가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이 304명(82.4%)으로 많았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비교적 학년이 낮을수록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둘째, 대상자의 피부 관리에 따른 행동을 보면 화장품 구매에 있어서는 ‘직접 구매’ 196명(5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님이 구매한다’ 132명(35.8%)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직접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구매빈도는 년 1~2회 139명(37.7%)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피부 상담 경험은 288명(78.0%)으로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없었으며 피부 관리를 하고 싶은 학생은 320명(86.7%)으로 대체적으로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키기 위해 피부 관리를 하고 싶어 했으며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35명(36.6%)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대상자의 피부 관리에 대하여 인지한 건강신념변수와의 관계에서 민감성은 유익성, 장애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에서, 유익성은 장애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에서, 장애성은 심각성에서, 심각성은 자아효능감에서 각각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섯째, 피부 관리 행동에 따라 건강신념모델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 민감성, 유익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장애성이 낮을수록 피부 관리의 관심도와 피부 관리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상자의 피부 관리 관심도, 피부 관리 의사여부, 피부 교육의 필요성에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아 효능감이 높을수록(2.942배) 피부에 관심이 있었고 민감성이 높을수록(7.153배) 피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감성(2.025배), 장애성(0.575배), 심각성(1.607배)이 높을수록 피부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여고생들의 피부 건강 지식에 대한 관심과 효과적인 피부 관리로 인해 유익성과 자아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피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CA시간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시행 한다면 여고생들이 건강한 피부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II. 이론적 배경	3
1. 피부와 건강	3
2. 청소년기의 일반적 특성	5
3. 청소년기의 피부 관리	7
4. 건강 신념 모델 이론	10
III. 연구방법	15
1. 연구대상	15
2. 연구기간	15
3. 연구 도구	15
4. 연구 내용	16
5. 자료 분석 방법	17
IV. 연구결과	18
V. 고찰	63
VI. 결론 및 요약	69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설문지 구성	15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표 3> 피부 관리 관심도	21
<표 4> 주관적 피부상태	23
<표 5> 피부 관리 방법	25
<표 6> 화장품 구매 방법	27
<표 7> 화장품 구매 횟수	29
<표 8> 사용하는 세안제	31
<표 9> 피부 상담 경험	33
<표 10> 피부 관리 의사 여부	35
<표 11> 피부 관리를 하고 싶은 이유	37
<표 12> 피부 관리에 대한 주관적 의견	39
<표 13> 학교에서 피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41
<표 14>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의 범위	43
<표 15> 학교에서 피부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싶은 이유	45
<표 16> 학교에서 피부 관리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싶지 않은 이유	47
<표 17> 건강신념모델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50
<표 18> 전반적인 건강신념 모델	51
<표 1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신념 모델의 차이	53
<표 20> 조사대상자의 피부 관리 특성에 따른 건강 신념 모델의 차이	57
<표 21> 건강신념 모델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	58

<표 22> 피부 관리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59
<표 23> 피부 상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60
<표 24> 피부 관리 의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61
<표 25> 피부 관리 교육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62

그림 목차

<그림1> 연구의 설계	16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산업 사회가 발달하면서 많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문화의 발달에 비례하여 미의 개념이 모든 여성에게 일반화되어감에 따라 신체 내적인 건강 뿐 만 아니라 신체 외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강해지고 있고 피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혜정, 1996).

피부는 외부의 여러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

피부는 인체의 기관 중 연령에 따른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연령에 따른 형태학적 변화는 부위에 관계없이 피부를 구성하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의 변화가 동반된다. 또한 피부는 가장 겉면에 존재하는 기관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부 기관을 보호하며, 이물질에 대한 방어, 보호 물질의 분비, 체액의 보존, 체온조절, Vit.D생산, 재생 및 분비물 배출의 기능 등을 한다(김명숙, 2001).

피부의 상태는 신체의 건강, 호르몬의 분비, 내장기관, 등의 내적인 요소와 계절, 기후, 환경 등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여러 요인들에 대하여 피부를 정상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영양섭취, 적절한 휴식 등으로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힘쓰며 자신의 피부에 알맞은 피부건강관리를 해야 한다(임혜원, 1999).

Fiers(1996)는 적절한 피부관리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손상의 위험도를 줄이고 피부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해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의 선택과 사용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피부유형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으므로 피부와 피부 관리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요구되며 피부 건강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행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심한 여고생들에게 올바른 피부미용교육 프로그램이 피부 관리에 효과적으로 형성되기 위하여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하여 여고생들의 피부 관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 행위에 관련된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여고생들의 이상적인 피부 관리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피부지식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자 고등학생들의 피부 관리 실태 및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도와 피부 관리 행동 요인을 건강 신념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피부 관리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여 고등학생들의 피부 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과과정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피부 관리의 관심도를 파악한다.
-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 신념 모델을 파악한다.
- 3) 피부의 관심도가 피부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한다.
- 4) 건강 신념 모델이 피부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피부와 건강

1) 피부의 기능

피부는 인체의 외부 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으로써 물리, 화학적으로 외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전신의 대사에 필요한 생화학적 기능을 영위하는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이다(윤여성, 1995).

피부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체온조절과 증발조절, 세균과 미생물의 침입 시 방어기능, 압력, 충격, 마찰로부터의 보호, 날씨에 의한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화학적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광선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가지며 피하지방은 각종 영양분과 수분을 보유하는 저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엄수경, 2005).

피부는 신체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위하여 물질전환의 역할을 하며 신체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지방은 물에 용해되고 탄수화물로 전환되며 프로비타민D도 자외선의 영향을 받으면 비타민 D로 전환 및 활성화되는 영양분 교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호흡 시에 1%정도의 산소를 흡수하여 Rein방어막(수분증발 저지막)은 이물질의 침투를 최대한 저지하면서 약간의 영양분(화장품, 의약품)을 흡수한다. 이처럼 피부는 외부와 직접 접하고 있는 우리 신체의 가장 겉표면으로 외부의 여러 영향으로부터 내부기관을 보호하며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우리 신체의 중요한 기관이다(김선미, 2006).

2) 건강한 피부

(1) 피부의 표면이 매끈하다.

피부의 표면에는 고랑과 같은 구멍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피부고랑의 폭,

깊이, 구멍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피부고랑의 폭이 좁고 얇은 경우 우리의 눈에는 고운 피부로 보인다. 그 반대로 피부 고랑의 폭이 넓고 깊으면 피부 능선의 높아짐이 눈에 띄어 피부의 표면은 감촉이 거칠고 윤기가 없이 거칠어 보인다. 여기에는 모공과 땀구멍도 눈에 띈다. 연령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일수록 피부고랑의 폭이 미세하고 나이가 들수록 거칠어지며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피부가 거칠다.

(2) 피부표면이 촉촉하며 윤택이 있다.

피부의 보습력은 건강한 피부의 한 조건이다. 수분이 없으면 피부의 표면은 거칠어진다. 피부가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표면에 있는 얇은 지방막에 의해서인데 이것은 피지막이라고 한다. 이는 피부의 건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친수성이 있어 수분을 끌어들인다. 건강한 피부의 각질층은 약 15~20%의 수분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데 이 수분에 의해 피부 표면이 촉촉하고 윤기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3) 피부가 부드럽고 팽팽하며 탄력이 있다.

피부의 탄력성은 표피와 진피의 경계에 있는 파상형으로 맞물린 부분의 표피 용기와 진피의 탄력섬유 등에 의해 유지된다. 연령 또는 자외선 등의 외부 자극이 영향을 받아 노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탄력성이 줄어든다.

(4) 피부의 혈액순환이 좋아 건강하게 보인다.

피부의 가장 표면에 있는 모세혈관에 있어서 일정한 양의 혈액 순환의 속도가 지속될 때 피부는 혈액이 좋아지고, 생기가 있으며, 터질 듯한 건강미가 있어 보인다.

(5) 피부색이 아름답다.

피부의 색소분포정도에 따라 과색소 피부와 색소 결핍 피부로 분류한다. 과색소 피부는 비정상적인 색소의 침착을 야기시킨 상태로 주근깨, 기미, 점, 검버섯 등이 있다. 이들 과색소 피부의 증상과 특성이 다르지만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인 생활환경에서 비롯된 각종자극, 즉 햇빛과 스트레스 등이 주 발생 원인이다. 색소 결핍 피부는 피부의 비정상적인 색소의 결핍 증상이다.

건강한 피부라 할지라도 생리적 요인, 영양학적 요인, 외부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생화학적 요인, 생활 요인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피부는 거칠어지고 손상될 수 있다. 또한 피부는 혈액 속의 영양소에 의해 자라므로 균형 있는 식사는 피부 건강에 필수적이다. 피부는 적절한 세안, 자극, 수분공급(필요할 때), 해로운 환경 영향으로부터의 보호를 통해서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매일 적당한 수분 또는 유용한 액체를 섭취하는 것이 피부에 좋으며(Joel Gerson, 1998),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피부 관리를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여성은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평가하기도 하며, 내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을 대인관계 유지에 필요한 도구로 여기기도 한다. 또한 외모는 여성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피부관리 습관의 양상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김향숙, 2007).

따라서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청소년기의 건강, 특히 피부의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2. 청소년의 일반적 특징

청소년기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호르몬의 분비와 함께 급격한 생리적·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2~13세부터 20세 초반까지의 연령층을 말하며(김제한, 1983) 아동기와 성인기의 특성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 사이를 이행한다는 뜻으로 과도기(transitional age),

성인 집단에는 끼어들지 못하면서 아동으로 취급해주지 않은 주변인 (marginal man),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면서 떨어져 나가려는 시기인 심리적 이유기(psychological weaningperiod), 정신생활의 새로움 때문에 혼란과 반항이 특징인 부정기(negative phase), 제 2반항기, 감성의 기복이 급격하고 변화가 심한 질풍노도의시기, 자아에 대한 발전을 하려는 특징으로 인해 자아 발견의 시기, 자기주장의 시기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정연석, 1979).

이처럼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인체발달의 과도기로서, 자아개념(self-concept)이 확립되어 가고, 급속한 신체의 성장과 생리적 변화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장병립, 1979) 특히 청소년기의 여자는 외모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로 외모를 통해 상대를 평가하려는 속성이 강하며 몸매나 얼굴에 자신이 없을 때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외모를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외모는 청소년들 사이에 자신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특히 또래간의 관계 속에서 매력적인 외모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은주, 2007).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경계가 분명하며, 개성보다 조직이 중요시되던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밝힌다. 즉 지금까지 지켜오던 형식이나 관례에 대해서도 의의가 생기면 이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으며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있어 남의 이목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이순례, 2006). 이들은 풍요로운 경제와 핵가족세대의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감각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 과학기술이 낳은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비교적 자유롭게 소유하고 이용

하여 자란 세대이다. 따라서 내면적 자아실현의 가치를 추구하고 개별성, 평등지향, 혁신, 모험주의, 감성주의의(나운봉,1994/홍혜은,1999) 가치관이 정립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이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미에 대한 이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김희진, 2010).

3. 청소년기의 피부 관리

1) 피부 관리의 중요성

청소년들이 건강한 피부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들의 피부상태를 정확히 알고 올바른 피부 관리와 건전한 생활 습관 등의 행동 수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다이어트, 인스턴트식품 섭취, 기호식, 잘못된 피부 관리 습관에 의해 오히려 피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부를 외부로부터의 자극에서 직접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부의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피부 표면은 유희된 지방으로 싸여 있어서 더러워지기 쉽다 (윤철진, 1992). 그러므로 아침, 저녁으로 오래된 각질, 더러운 오염물질, 메이크업 등의 잔여물을 제거하여 피부가 원활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세안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 (김종대 외,1996).

이주희(2006)의 연구에 의하면 여고생의 생활습관은 비누 및 클렌징 제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할 수 있으며 피부 탄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으며, 이은숙(2009) 세안 프로그램이 여중생들의 피부 관리 실천행위와 피부 상태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 의하면 올바른 세안법은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 주고 피부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했다.

수면의 경우(윤여성, 1995) 피부 조직을 회복시켜주므로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수면 부족으로 피부에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부 세포의 신진대사 저하로 세포의 영양공급 및 대사부산물 배설이 저하되고 피부 건조화 및 탄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양미영(2009)의 연구에서도 수면 및 식습관이 여성의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침형 여성보다 저녁형 여성에게서 지성 피부가 더 많았다. 아침형 여성이 저녁형 여성보다 피부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수면 부족이 아닌 경우가 수면이 부족한 경우보다 지성 피부와 민감성 피부가 더 많이 나타났고 수면이 부족한 여성이 자신의 피부가 더 건강하다고 나타났다.

한편 김향숙(2007)의 실업계 고등학생의 건강증진 행위 및 피부 건강관리 인식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알레르기성 피부를 갖은 사람과 피부 관리를 2주에 1~2회 이상 받은 사람, 피부과 병원을 통해 피부 건강 정보를 습득하고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을 많이 경험한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피부 건강관리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진영(2009)의 메디컬 스킨케어의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문제성 피부에 대한 시술의 만족도에서 여드름 흉터에는 화학적인 박피가 좋다고 인식하는 고객이 32.3%로 높았고 색소침착 개선에는 IPL이 46.6%, 주름살 및 피부 탄력 저하, 넓은 모공 개선에 대한 시술의 만족도는 폴라리스가 21.7%로 효과적이었으며 피부 재생 관리는 바이탈 이온토 포레시스(Iontorhoresis)가 30.8%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피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피부미용관리습관과 생활 습관 등의 건강행위를 통해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장경자,2000)

2) 청소년기의 피부 특성

(1) 피부가 쉽게 번들거린다.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의 일종인 안드로겐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피지를 만들어 내는 피지선을 자극하기 때문에 피지 생성이 많아져 세안 후에도 쉽게 번들거린다. 또한 시험 준비로 항상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피지 분비를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사춘기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피부가 번들거리는 현상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2) 각질이 두터워진다.

피지선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안드로겐 호르몬은 피부 세포를 자극하여 죽은 세포인 각질 세포로 만들기 때문에 각질층이 두터워진다. 그러므로 피부 색이 투명하지 않고 마치 때가 낀 것처럼 칙칙하게 보이는 것이다. 또한 모공의 가장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각질 세포이므로 각질층이 두꺼워지면 모공이 막힐 수 있다.

(3) 여드름이 생긴다.

모공은 피지선에서 만들어진 피지가 배출되는 통로이다. 통로가 과다피지나 각질로 막히면 모공내의 피지가 원활히 빠져 나가지 못하므로 청소년기가 되면 여드름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성인 화장품에 함유된 일부 오일이나 성분 등에 의해 모공이 막혀 새로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다. 흔히, 여드름이라고 하면 빨갛게 튀어 오르고 붉은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처음 시작하는 여드름은 모공 내에 피지가 뭉쳐 있는 '흰색 면포'상태이거나 이 내용물중의 일부가 모공 밖으로 나와 공기와 접촉하여 검게 산화된 '흑색 면포'상태이다. 이러한 모든 여드름은 모공이 막혀 생성되는 것이며 '염증성 여드름은 모공 내에 남아 있는 피지에 여드름 균이 번식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4) 아침에는 당기고 오후에는 번들거리는 등 시시각각 변한다.

피부 상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절이나 냉, 난방 등의 외부 환경이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 따라서 세안을 마친 후에는 다소 당기는듯 하다가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번들거리게 되고, 냉, 난방이 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피부가 당기는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활발한 피지선의 작용으로 인해 얼굴이 번들거리기도 쉽지만 잦은 세안과 과도한 세정 효과가 있는 클렌저의 사용은 청소년의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할 수 있다.

4. 건강신념모델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은 1950년대 초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사람들의 질병예방행위나 질병에 대한 조기검진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이해하고자 개발되었다.

건강신념모델의 주요 개념은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및 행동의 계기이며, 후에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상태를 피하려는 욕구를 의미하는 건강동기 개념이 추가되었다(Becker,1974).

건강신념은 건강과 관련된 행위의 근원이 되며 매우 복합적인 개념으로 사람이 질병에 대해 자신이 민감하게 지각하고 그 질병이 심각하다고 믿으며 질병을 위한 예방활동이 이익도 많고 장애가 적음을 인식하고 가능한 활동계기가 주어지고 건강문제에 있어 일반적으로 동기화 되어 있다면 그 질병을 위한 예방적 건강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문정순, 1990) 이러한 신념은 건강의 위협을 줄이는 행동의 효율성과 만일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유발 동기가 있어야 하고 유발 동기는 자신의 신체 상태인지와 같은 내적 자극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나 대중매체와 같은 외적 자극

일 수도 있다. 유발동기 외에도 인구학적 변수(연령, 성별, 종족, 인격, 사회경제상태, 질병에 대한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신념의 변화가 일어난 후,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을 의식수준으로 올려주는 행동의 계기가 주어질 때 비로소 건강행위가 이행된다고 하였다(Becker,1974).

또, Rosenstock 등(1998) 예방적 건강행위에 적응하고 이를 완수하는 능력에 관한 지각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Bandura(1986)에 의하면 자기 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 과정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자신의 자기 효능감을 높게 지각한 사람은 낮게 지각한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예방적 건강행위 (Preventive Health Behavior)로 확대되고, Karl & Cobb(1996)는 건강과 질병 그리고 회복과 관련된 행동을 예방적 건강행위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질병행위는 증상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당한 치료의 발견과 그의 건강상태의 정의를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환자 역할 행위는 자신의 아프다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 잘 나을 목적으로 지시된 치료를 받는 행위로 정의 하였다.

즉, 예방행위란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건강신념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혹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가 결정되기 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지각 상태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면서 다음의 주요 개념들을 제시 하였다.

1) 지각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

어떤 건강상태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지각하거나 질병에 이미 걸린 경우 의료적 진단을 받아들이거나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등 일반적으로 질병에 민감하다고 믿는 것을 말하며, 개인의 민감성 정도에 따라 건강행위를 할 가능성이 달라진다.

2)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riousness)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마다 다양한데, 질병이 의학적인 측면에서 신체와 정신적 기능 감소, 사망, 영구적 장애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걱정한다. 그러나 질병의 심각성은 의학적인 측면 뿐 아니라 자신의 직업, 가족생활,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사회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건강행위를 할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3) 지각된 유익성(Perceived benefits)

특정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지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 개인의 민감성이 위협감을 느껴 행동을 취할 때 그러한 행동의 과정은 특정한 행위의 효과가 질병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여겨질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건강행위는 질병 위협을 감소시키는 행위의 효율성에 대한 신념이나 건강 행위의 유익성을 지각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는 행위의 유익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건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4) 지각된 장애성(Perceived barriers)

특정 건강행위에 대한 부정적 지각으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건강행위에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말한다. 개인은 건강행위 수행이

질병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이라고 지각할 수도 있으나 비용, 위협, 불편과 같은 부정적인 장애로 인해 건강행위를 수행하는데 방해받을 수 있게 된다. 즉, 행위의 장애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건강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5) 행동의 계기(Cues to action)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이라는 건강신념의 변화가 일어난 후 행동의 계기가 주어질 때 비로소 건강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의 계기는 신체적 상태의 지각과 같은 내적인 것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매체의 영향, 의사의 처방전과 외적인 것이 있다.

6) 기타 변인

위의 건강신념 외에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인구학적, 사회 심리적, 구조적 변수가 있다. 인구학적 변수로는 연령, 성별, 인종, 민족성 등이 있으며, 사회심리학적 변수로는 성격, 교육 정도, 사회계층, 동료 집단 등을 들 수 있다. 또 구조적 변수로는 질병에 대한 지식, 질병에의 노출 경험 등이 포함된다.

7)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건강신념모델은 여러 해 동안 새로운 변수 없이 활용되어 오다가 Becker(1974)가 건강동기(Health motivation)개념을 소개하였으며, 그 후 Rosenstock등(1988)이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을 기반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건강신념모델은 초기에 검진이나 예방접종 같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

람들이 수행가능한 간단한 예방적 행위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예방사업의 목표는 간단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자기효능을 가진다. 많은 문헌에서는 자기효능의 행동변화 시작과 유지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김영임 등, 2007)

자아효능감이 포함된 이후 Rosenstock, Strecher, Becker(1994)는 건강신념모델(HBM)의 중요 변수를 배경, 지각, 행동의 3가지 요소로 카테고리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 도식화 하였다.

지각된 민감성과 심각성의 조합은 지각된 위협으로 나타나는데 민감성과 심각성의 적절한 조화가 행동에너지를 만들고 장애를 덜 가져온다는 유익성의 지각이 행동을 유발하게 되며 자기효능은 성과기대감과 효능기대감으로 구별되는데 성과기대감은 건강신념모델의 지각된 유익성과 유사하나 같지는 않다. 효능기대감은 자신의 건강에 필요한 행위를 잘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행위수행에 대한 훈련, 자신감 등이다(김세진, 2009).

Rosenstock, Becker, Strecher(1988)은 건강신념에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의 초기개념과 분리된 구성요소로 자기효능을 추가하였는데 건강신념모델에 의하면 예방적 건강행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야 하고(지각된 민감성과 심각성의 조합), 특정변화가 비용적으로 수용할만하다면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지각된 유익성), 행동에 장애가 되는(지각된 장애성)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감, 즉 자기효능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행동의 계기가 주어질 때 예방적 건강행위가 이행된다. 다양한 인구학적, 사회심리학적, 구조적 변인들이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건강관련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별히 사회 인구학적 요인이나 교육적 성취들은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동에 간접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Diclemente & Peterson, 1994).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에 있는 여자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재학 중인 여고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기간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본 연구자가 고등학교에 찾아가 설문지 자료의 사용목적과 연구 내용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회수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가 배포되었으며 이 중 369부가 회수 되었다.

3. 연구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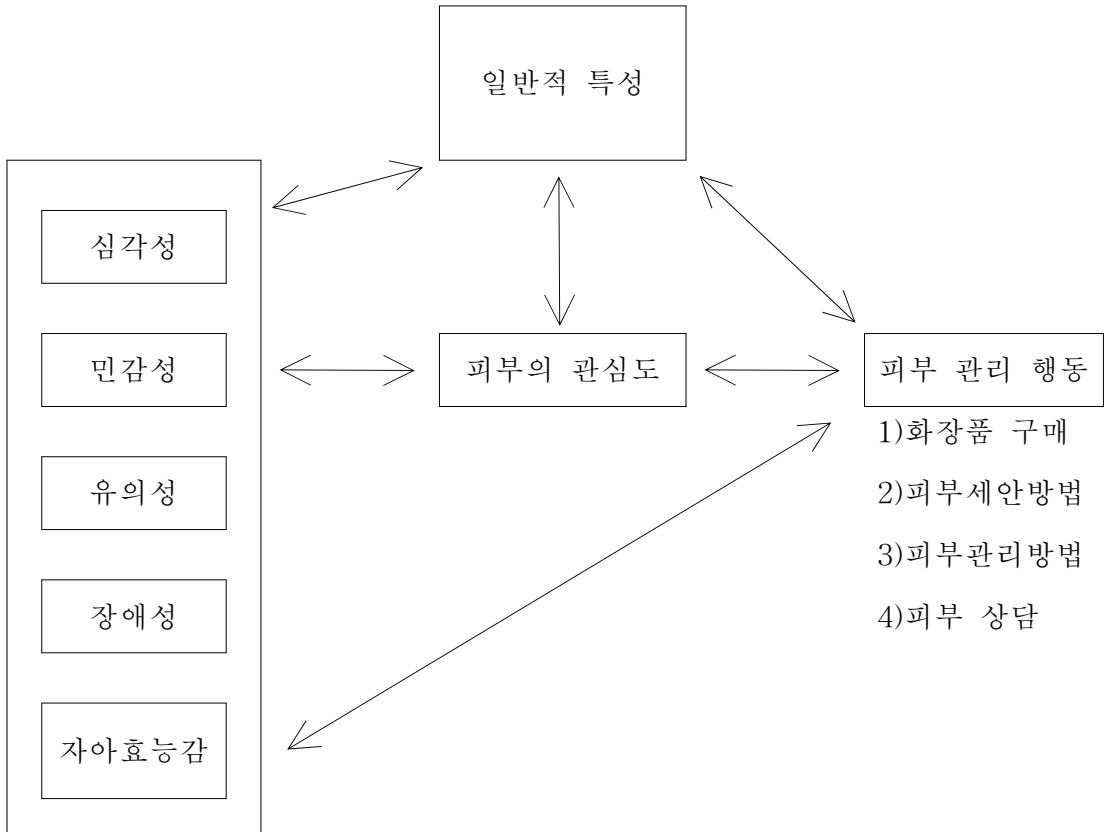
<표1> 설문지 구성

요인	하위특성	문항수
피부 관리행동	피부 관리의 관심도, 피부 관리 및 상태, 화장품 구매 및 구매 횟수, 피부 관리에 대한 상담, 피부 관리 이유, 피부 관리 지식, 피부에 대한 지식 교육 희망	14
건강 신념 변수 요인 분석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민감성, 인지된 유익성 인지된 장애성, 자아효능감	25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학년, 신장, 체중, 종교, 용돈, 거주, 담배, 수면시간, 음주량, 커피섭취량, 운동,	13
계		52

(채효숙2001, 김세진2009, 김영임2007, Rosenstock becker,Stexher1988, Hershberger1988)

4. 연구 내용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하여 여고생들의 피부 관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 행위에 관련된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여고생들의 이상적인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피부 지식 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림1> 연구의 설계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 v. 14.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고등학생의 피부 관리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건강신념모델에 대해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피부 관리 행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 방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건강신념모델 하위변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피부 관리 관심도, 피부 상담여부, 피부 관리 의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신념모델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 <표 2>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15명(31.2%), '고등학교 2학년' 107명(29.0%), '고등학교 3학년' 147명(39.8%)으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은 10만원 이하'가 299명(81.0%), '10만원 이상'이 70명(9.0%)으로 나타났고, 거주형태는 '자택'이 350명(94.9%), '하숙·자취·기숙사'가 9명(5.1%)순으로 나타났다.

흡연여부는 20명(5.4%)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49명(94.6%)은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수면시간은 '5시간 미만'이 50명(13.6%), '6시간 미만'이 152명(41.2%), '7시간 미만' 135명(36.6%), '8시간 이상' 32명(8.7%)으로 나타났다. 음주량은 70명(19.0%)이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99명(81.0%)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피는 '안 마신다' 297명(80.5%), '하루 1잔 이상' 72명(19.5%)으로 나타났다.

1주일 기준 운동 횟수는 '전혀 못 한다' 165명(44.7%), '1일' 82명(22.2%), '2일' 64명(17.3%), '3일' 26명(7.0%), '4일 이상' 32명(8.7%)으로 나타났고, 비만도는 '저체중' 84명(22.8%), '정상' 247명(66.9%), '과체중' 23명(6.2%), '비만' 15명(4.1%)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	퍼센트(%)
학년	1학년	115	31.2
	2학년	107	29.0
	3학년	147	39.8
한 달 용돈	10만원 이하	299	81.0
	10만원 이상	70	19.0
거주형태	자택	350	94.9
	하숙·자취·기숙사	19	5.1
흡연여부	예	20	5.4
	아니오	349	94.6
하루 수면시간	5시간 미만	50	13.6
	6시간 미만	152	41.2
	7시간 미만	135	36.6
	8시간 이상	32	8.7
음주여부	예	70	19.0
	아니오	299	81.0
커피	안 마신다	297	80.5
	하루 1잔 이상	72	19.5
운동횟수 (1주일 기준)	1회	82	22.2
	2회	64	17.3
	3회	26	7.0
	4회 이상	32	8.7
	전혀 못 한다	165	44.7
비만도	저체중	84	22.8
	정상	247	66.9
	과체중	23	6.2
	비만	15	4.1
	합계	369	100.0

2. 피부 관리 행동

다음은 고등학생의 피부 관리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 피부 관리 관심도

다음 <표 3>는 피부 관리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있다’가 304명(82.4%)으로 나타났고, ‘없다’는 65명(17.6%)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학년, 운동 횟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먼저 학년에 따라서는 비교적 학년이 낮을수록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 횟수에 따라서는 비교적 주 운동 횟수가 많을수록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3> 피부 관리 관심도

구분	피부 관리 관심도				X ² (p)	
	있다		없다			
	N	%	N	%		
학년	1학년	106	92.2	9	7.8	11.313** (.003)
	2학년	85	79.4	22	20.6	
	3학년	113	76.9	34	23.1	
한 달 용돈	10만원 이하	248	82.9	51	17.1	.339 (.561)
	10만원 이상	56	80.0	14	20.0	
거주형태	자택	290	82.9	60	17.1	1.045 (.307)
	하숙·자취·기 숙사	14	73.7	5	26.3	
흡연여부	예	15	75.0	5	25.0	.795 (.373)
	아니오	289	82.8	60	17.2	
하루 수면시간	5시간 미만	37	74.0	13	26.0	8.285 (.040)
	6시간 미만	130	85.5	22	14.5	
	7시간 미만	115	85.2	20	14.8	
	8시간 이상	22	68.8	10	31.3	
음주여부	예	58	82.9	12	17.1	.013 (.908)
	아니오	246	82.3	53	17.7	
커피	안 마신다	247	83.2	50	16.8	.638 (.424)
	하루 1잔 이상	57	79.2	15	20.8	
운동횟수 (1주일 기준)	1회	62	75.6	20	24.4	9.686* (.046)
	2회	56	87.5	8	12.5	
	3회	23	88.5	3	11.5	
	4회 이상	31	96.9	1	3.1	
	전혀 못 한다	132	80.0	33	20.0	
비만도	저체중	74	88.1	10	11.9	2.919 (.404)
	정상	198	80.2	49	19.8	
	과체중	19	82.6	4	17.4	
	비만	13	86.7	2	13.3	
합계		304	82.4	65	17.6	

* p<.05, ** p<.01

2) 주관적 피부상태

다음 <표 4>는 주관적 피부상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트러블이 있다’가 136명(36.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안 후 당긴다’ 98명(26.6%), ‘모공이 넓다’ 64명(17.3%), ‘피부가 칙칙하다’ 39명(10.6%), ‘세안 후 유분감이 있다’ 22명(6.0%),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다’ 10명(2.7%)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비만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저체중, 정상, 비만의 경우 트러블성 피부가 많았으나 비만의 경우 모공이 넓은 피부가 많아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4> 주관적 피부상태

구분	주관적 피부상태											X ² (p)		
	세안 후 당긴다		세안 후 유분감이 있다		트러블이 있다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다		모공이 넓다		피부가 칙칙하다			
	N	%	N	%	N	%	N	%	N	%	N		%	
학년	1학년	24	20.9	11	9.6	43	37.4	2	1.7	22	19.1	13	11.3	13.655 (.189)
	2학년	25	23.4	5	4.7	39	36.4	2	1.9	21	19.6	15	14.0	
	3학년	49	33.3	6	4.1	54	36.7	6	4.1	21	14.3	11	7.5	
한 달 용돈	10만원 이하	79	26.4	16	5.4	114	38.1	8	2.7	53	17.7	29	9.7	2.956 (.707)
	10만원 이상	19	27.1	6	8.6	22	31.4	2	2.9	11	15.7	10	14.3	
거주형태	자택	95	27.1	19	5.4	131	37.4	9	2.6	62	17.7	34	9.7	10.442 (.064)
	하숙·자취·기 숙사	3	15.8	3	15.8	5	26.3	1	5.3	2	10.5	5	26.3	
흡연여부	예	3	15.0	1	5.0	8	40.0	1	5.0	5	25.0	2	10.0	2.283 (.809)
	아니오	95	27.2	21	6.0	128	36.7	9	2.6	59	16.9	37	10.6	
하루 수면시간	5시간 미만	14	28.0	1	2.0	18	36.0	2	4.0	9	18.0	6	12.0	6.160 (.977)
	6시간 미만	43	28.3	11	7.2	56	36.8	3	2.0	24	15.8	15	9.9	
	7시간 미만	33	24.4	10	7.4	50	37.0	4	3.0	24	17.8	14	10.4	
	8시간 이상	8	25.0			12	37.5	1	3.1	7	21.9	4	12.5	
음주여부	예	16	22.9	3	4.3	25	35.7	1	1.4	14	20.0	11	15.7	3.922 (.561)
	아니오	82	27.4	19	6.4	111	37.1	9	3.0	50	16.7	28	9.4	
커피	안 마신다	81	27.3	19	6.4	108	36.4	7	2.4	52	17.5	30	10.1	1.916 (.861)
	하루 1잔 이상	17	23.6	3	4.2	28	38.9	3	4.2	12	16.7	9	12.5	
운동횟수 (1주일 기준)	1회	22	26.8	8	9.8	30	36.6	3	3.7	14	17.1	5	6.1	25.430 (.185)
	2회	14	21.9	3	4.7	25	39.1	2	3.1	14	21.9	6	9.4	
	3회	10	38.5			7	26.9	3	11.5	4	15.4	2	7.7	
	4회 이상	6	18.8	4	12.5	14	43.8			5	15.6	3	9.4	
	전혀 못 한다	46	27.9	7	4.2	60	36.4	2	1.2	27	16.4	23	13.9	
비만도	저체중	28	33.3	1	1.2	30	35.7	3	3.6	15	17.9	7	8.3	29.841* (.013)
	정상	65	26.3	18	7.3	94	38.1	6	2.4	34	13.8	30	12.1	
	과체중	3	13.0	1	4.3	10	43.5	1	4.3	8	34.8			
	비만	2	13.3	2	13.3	2	13.3			7	46.7	2	13.3	
합계		98	26.6	22	6.0	136	36.9	10	2.7	64	17.3	39	10.6	

* p<.05

3) 피부 관리방법

다음 <표 5>는 피부 관리방법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안 한다’가 187명(50.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홈 케어’ 140명(37.9%), ‘화장품 구입 시 서비스’ 21명(5.7%), ‘병·의원/전문 관리실’ 21명(5.7%)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피부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흡연여부, 음주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먼저 흡연여부에 따라서는 흡연을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 모두 피부 관리를 하지 않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홈케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여부에 따라서는 음주를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 모두 피부 관리를 하지 않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외에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홈케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 관리실/병·의원의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피부 관리방법

구분	피부 관리방법								X ² (p)	
	전문 관리실/ 병·의원		홈 케어		화장품 구입 시 서비스		안한다			
	N	%	N	%	N	%	N	%		
학년	1학년	8	7.0	48	41.7	8	7.0	51	44.3	10.110 (.120)
	2학년	2	1.9	46	43.0	7	6.5	52	48.6	
	3학년	11	7.5	46	31.3	6	4.1	84	57.1	
한 달 용돈	10만원 이하	18	6.0	109	36.5	19	6.4	153	51.2	2.511
	10만원 이상	3	4.3	31	44.3	2	2.9	34	48.6	(.473)
거주형태	자택	19	5.4	132	37.7	19	5.4	180	51.4	2.494
	하숙·자취·기숙사	2	10.5	8	42.1	2	10.5	7	36.8	(.476)
흡연여부	예	5	25.0	3	15.0			12	60.0	18.353***
	아니오	16	4.6	137	39.3	21	6.0	175	50.1	(.000)
하루 수면시간	5시간 미만	6	12.0	18	36.0	3	6.0	23	46.0	11.169 (.264)
	6시간 미만	5	3.3	59	38.8	10	6.6	78	51.3	
	7시간 미만	6	4.4	55	40.7	7	5.2	67	49.6	
	8시간 이상	4	12.5	8	25.0	1	3.1	19	59.4	
음주여부	예	9	12.9	24	34.3	4	5.7	33	47.1	8.312*
	아니오	12	4.0	116	38.8	17	5.7	154	51.5	(.040)
커피	안 마신다	13	4.4	117	39.4	17	5.7	150	50.5	5.477
	하루 1잔 이상	8	11.1	23	31.9	4	5.6	37	51.4	(.140)
운동횟수 (1주일 기준)	1회	7	8.5	28	34.1	5	6.1	42	51.2	12.883 (.378)
	2회	3	4.7	33	51.6	2	3.1	26	40.6	
	3회	3	11.5	11	42.3	1	3.8	11	42.3	
	4회 이상	1	3.1	13	40.6	3	9.4	15	46.9	
	전혀 못 한다	7	4.2	55	33.3	10	6.1	93	56.4	
비만도	저체중	1	1.2	36	42.9	5	6.0	42	50.0	9.133 (.425)
	정상	16	6.5	92	37.2	16	6.5	123	49.8	
	과체중	2	8.7	7	30.4			14	60.9	
	비만	2	13.3	5	33.3			8	53.3	
합계		21	5.7	140	37.9	21	5.7	187	50.7	

* p<.05, *** p<.001

4) 화장품 구매방법

다음 <표 6>는 화장품 구매방법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직접 구매한다'가 196명(5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님이 구매한다' 132명(35.8%), '주위 권유로 구매한다' 29명(7.9%), '친구한테 선물 받는다' 12명(3.3%)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직접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커피 섭취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1$), 다소 차이는 있으나 커피를 마시는 학생과 마시지 않는 학생 모두 본인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화장품 구매방법

구분	화장품 구매방법								χ ² (p)	
	직접 구매 한다		부모님이 구매 한다		친구한테 선물 받는다		주위 권유로 구매 한다			
	N	%	N	%	N	%	N	%		
학년	1학년	57	49.6	48	41.7	2	1.7	8	7.0	9.865 (.130)
	2학년	51	47.7	39	36.4	7	6.5	10	9.3	
	3학년	88	59.9	45	30.6	3	2.0	11	7.5	
한 달 용돈	10만원 이하	163	54.5	107	35.8	10	3.3	19	6.4	5.162 (.160)
	10만원 이상	33	47.1	25	35.7	2	2.9	10	14.3	
거주형태	자택	186	53.1	125	35.7	11	3.1	28	8.0	.428 (.934)
	하숙·자취·기숙	10	52.6	7	36.8	1	5.3	1	5.3	
흡연여부	예	6	30.0	11	55.0	1	5.0	2	10.0	4.635 (.201)
	아니오	190	54.4	121	34.7	11	3.2	27	7.7	
하루 수면시간	5시간 미만	29	58.0	17	34.0	2	4.0	2	4.0	9.269 (.413)
	6시간 미만	88	57.9	50	32.9	5	3.3	9	5.9	
	7시간 미만	66	48.9	51	37.8	5	3.7	13	9.6	
	8시간 이상	13	40.6	14	43.8			5	15.6	
음주여부	예	35	50.0	29	41.4	3	4.3	3	4.3	2.618 (.454)
	아니오	161	53.8	103	34.4	9	3.0	26	8.7	
커피	안 마신다	164	55.2	103	34.7	5	1.7	25	8.4	13.894** (.003)
	하루 1잔 이상	32	44.4	29	40.3	7	9.7	4	5.6	
운동횟수 (1주일 기준)	1회	40	48.8	34	41.5	3	3.7	5	6.1	12.832 (.381)
	2회	33	51.6	24	37.5	1	1.6	6	9.4	
	3회	14	53.8	12	46.2					
	4회 이상	14	43.8	11	34.4	3	9.4	4	12.5	
	전혀 못 한다	95	57.6	51	30.9	5	3.0	14	8.5	
비만도	저체중	56	66.7	20	23.8	2	2.4	6	7.1	14.668 (.100)
	정상	126	51.0	93	37.7	8	3.2	20	8.1	
	과체중	8	34.8	12	52.2	2	8.7	1	4.3	
	비만	6	40.0	7	46.7			2	13.3	
합계		196	53.1	132	35.8	12	3.3	29	7.9	

**p<.01

5) 화장품 구매횟수

다음 <표 7>는 화장품 구매횟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년 1-2회'가 139명(37.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년 3-4회' 94명(25.5%), '구매를 안 한다' 69명(18.7%), '년 6회 이상' 37명(10.0%), '년 5-6회' 30명(8.1%)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년 1-2회 정도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하루 수면시간, 운동 횟수, 비만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먼저 하루 수면시간에 따라서는 7시간미만의 경우 년 1-2회 정도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시간 이상의 경우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운동 횟수에 따라서는 2일 미만이나 4일 이상의 경우 년 1-2회 정도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일 정도 운동을 하는 경우 년 3-4회 정도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비만도에 따라서는 저체중의 경우 년 3-4회 정도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상이나 과체중의 경우 년 1-2회 정도, 비만의 경우 년 1-2회 또는 년 3-4회 정도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7> 화장품 구매횟수

구분		화장품 구매횟수										X ² (p)
		구매를 안 한다		년 1-2회		년 3-4회		년 5-6회		년 6회 이상		
		N	%	N	%	N	%	N	%	N	%	
학년	1학년	18	15.7	43	37.4	34	29.6	9	7.8	11	9.6	4.038 (.854)
	2학년	22	20.6	41	38.3	28	26.2	8	7.5	8	7.5	
	3학년	29	19.7	55	37.4	32	21.8	13	8.8	18	12.2	
한 달 용돈	10만원 이하	57	19.1	109	36.5	77	25.8	27	9.0	29	9.7	2.517 (.642)
	10만원 이상	12	17.1	30	42.9	17	24.3	3	4.3	8	11.4	
거주형태	자택	61	17.4	134	38.3	91	26.0	28	8.0	36	10.3	7.887 (.096)
	하숙·자취·기숙	8	42.1	5	26.3	3	15.8	2	10.5	1	5.3	
흡연여부	예	6	30.0	8	40.0	5	25.0	1	5.0			3.852 (.426)
	아니오	63	18.1	131	37.5	89	25.5	29	8.3	37	10.6	
하루 수면시간	5시간 미만	8	16.0	16	32.0	12	24.0	6	12.0	8	16.0	22.562* (.032)
	6시간 미만	26	17.1	69	45.4	33	21.7	8	5.3	16	10.5	
	7시간 미만	24	17.8	45	33.3	43	31.9	15	11.1	8	5.9	
	8시간 이상	11	34.4	9	28.1	6	18.8	1	3.1	5	15.6	
음주여부	예	10	14.3	24	34.3	23	32.9	5	7.1	8	11.4	3.284 (.512)
	아니오	59	19.7	115	38.5	71	23.7	25	8.4	29	9.7	
커피	안 마신다	55	18.5	109	36.7	75	25.3	25	8.4	33	11.1	2.374 (.667)
	하루 1잔 이상	14	19.4	30	41.7	19	26.4	5	6.9	4	5.6	
운동횟수 (1주일 기준)	1회	20	24.4	30	36.6	15	18.3	9	11.0	8	9.8	30.585* (.015)
	2회	4	6.3	22	34.4	19	29.7	6	9.4	13	20.3	
	3회	6	23.1	5	19.2	8	30.8	3	11.5	4	15.4	
	4회 이상	9	28.1	14	43.8	4	12.5	2	6.3	3	9.4	
	전혀 못 한다	30	18.2	68	41.2	48	29.1	10	6.1	9	5.5	
비만도	저체중	10	11.9	24	28.6	26	31.0	14	16.7	10	11.9	23.210* (.026)
	정상	51	20.6	96	38.9	61	24.7	15	6.1	24	9.7	
	과체중	5	21.7	14	60.9	2	8.7			2	8.7	
	비만	3	20.0	5	33.3	5	33.3	1	6.7	1	6.7	
합계		69	18.7	139	37.7	94	25.5	30	8.1	37	10.0	

*p<.05

6) 사용하는 세안제

다음 <표 8>는 사용하는 세안제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클렌징 폼’이 237명(6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누’ 99명(26.8%), ‘클렌징 젤, 오일, 로션, 크림 등 기타’ 33명(8.9%)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거주형태, 음주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먼저 거주형태에 따라서는 자택이나 하숙·자취·기숙사 생활하는 학생 모두 클렌징 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외에 하숙·자취·기숙사 생활하는 학생의 경우 비누나 기타 세안제의 사용이 많았고, 음주여부에 따라서도 음주를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 모두 클렌징 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외에 음주를 하는 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누나 기타 세안제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사용하는 세안제

구분	사용하는 세안제						X ² (p)	
	클렌징 폼		비누		기타			
	N	%	N	%	N	%		
학년	1학년	79	68.7	25	21.7	11	9.6	6.341 (.175)
	2학년	64	59.8	37	34.6	6	5.6	
	3학년	94	63.9	37	25.2	16	10.9	
한 달 용돈	10만원 이하	199	66.6	75	25.1	25	8.4	3.716 (.156)
	10만원 이상	38	54.3	24	34.3	8	11.4	
거주형태	자택	228	65.1	94	26.9	28	8.0	7.649* (.022)
	하숙·자취·기숙사	9	47.4	5	26.3	5	26.3	
흡연여부	예	12	60.0	6	30.0	2	10.0	.164 (.921)
	아니오	225	64.5	93	26.6	31	8.9	
하루 수면시간	5시간 미만	33	66.0	13	26.0	4	8.0	6.161 (.405)
	6시간 미만	101	66.4	37	24.3	14	9.2	
	7시간 미만	86	63.7	35	25.9	14	10.4	
	8시간 이상	17	53.1	14	43.8	1	3.1	
음주여부	예	38	54.3	18	25.7	14	20.0	13.179** (.001)
	아니오	199	66.6	81	27.1	19	6.4	
커피	안 마신다	194	65.3	76	25.6	27	9.1	1.192 (.551)
	하루 1잔 이상	43	59.7	23	31.9	6	8.3	
운동횟수 (1주일 기준)	1회	56	68.3	18	22.0	8	9.8	11.986 (.152)
	2회	42	65.6	16	25.0	6	9.4	
	3회	18	69.2	4	15.4	4	15.4	
	4회 이상	22	68.8	5	15.6	5	15.6	
	전혀 못 한다	99	60.0	56	33.9	10	6.1	
비만도	저체중	62	73.8	14	16.7	8	9.5	10.859 (.093)
	정상	154	62.3	69	27.9	24	9.7	
	과체중	13	56.5	10	43.5			
	비만	8	53.3	6	40.0	1	6.7	
합계		237	64.2	99	26.8	33	8.9	

*p<.05, **p<.01

7) 피부 상담 경험

다음 <표 9>는 피부 상담 경험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81명(22.0%)은 피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8명(78.0%)은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음주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1$), 음주를 하는 경우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부 상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피부 상담 경험

구분	피부 상담 경험				X ² (p)	
	있다		없다			
	N	%	N	%		
학년	1학년	30	26.1	85	73.9	2.812 (.245)
	2학년	18	16.8	89	83.2	
	3학년	33	22.4	114	77.6	
한 달 용돈	10만원 이하	62	20.7	237	79.3	1.359 (.244)
	10만원 이상	19	27.1	51	72.9	
거주형태	자택	76	21.7	274	78.3	.223 (.637)
	하숙·자취·기숙사	5	26.3	14	73.7	
흡연여부	예	7	35.0	13	65.0	2.102 (.147)
	아니오	74	21.2	275	78.8	
하루 수면시간	5시간 미만	16	32.0	34	68.0	3.876 (.275)
	6시간 미만	29	19.1	123	80.9	
	7시간 미만	30	22.2	105	77.8	
	8시간 이상	6	18.8	26	81.3	
음주여부	예	24	34.3	46	65.7	7.671** (.006)
	아니오	57	19.1	242	80.9	
커피	안 마신다	64	21.5	233	78.5	.144 (.704)
	하루 1잔 이상	17	23.6	55	76.4	
운동횟수 (1주일 기준)	1회	17	20.7	65	79.3	2.682 (.612)
	2회	16	25.0	48	75.0	
	3회	6	23.1	20	76.9	
	4회 이상	10	31.3	22	68.8	
	전혀 못 한다	32	19.4	133	80.6	
비만도	저체중	17	20.2	67	79.8	2.361 (.501)
	정상	52	21.1	195	78.9	
	과체중	7	30.4	16	69.6	
	비만	5	33.3	10	66.7	
합계		81	22.0	288	78.0	

**p<.01

8) 피부 관리 의사여부

다음 <표 10>는 피부 관리 의사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320명(86.7%)이 본인 피부에 대해 알아보고 피부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49명(13.3%)은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커피 섭취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본인 피부에 대해 알아보고 피부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피부 관리 의사여부

구분	피부 관리 의사여부				χ ² (p)	
	있다		없다			
	N	%	N	%		
학년	1학년	107	93.0	8	7.0	5.874 (.053)
	2학년	89	83.2	18	16.8	
	3학년	124	84.4	23	15.6	
한 달 용돈	10만원 이하	263	88.0	36	12.0	2.101 (.147)
	10만원 이상	57	81.4	13	18.6	
거주형태	자택	306	87.4	44	12.6	2.956 (.086)
	하숙·자취·기숙사	14	73.7	5	26.3	
흡연여부	예	15	75.0	5	25.0	2.523 (.112)
	아니오	305	87.4	44	12.6	
하루 수면시간	5시간 미만	46	92.0	4	8.0	2.922 (.404)
	6시간 미만	134	88.2	18	11.8	
	7시간 미만	114	84.4	21	15.6	
	8시간 이상	26	81.3	6	18.8	
음주여부	예	61	87.1	9	12.9	.013 (.908)
	아니오	259	86.6	40	13.4	
커피	안 마신다	263	88.6	34	11.4	4.433* (.035)
	하루 1잔 이상	57	79.2	15	20.8	
운동횟수 (1주일 기준)	1회	70	85.4	12	14.6	4.774 (.311)
	2회	58	90.6	6	9.4	
	3회	25	96.2	1	3.8	
	4회 이상	29	90.6	3	9.4	
	전혀 못 한다	138	83.6	27	16.4	
비만도	저체중	76	90.5	8	9.5	1.537 (.674)
	정상	212	85.8	35	14.2	
	과체중	19	82.6	4	17.4	
	비만	13	86.7	2	13.3	
합계		320	86.7	49	13.3	

*p<.05

9) 피부 관리 하고 싶은 이유

다음 <표 11>는 피부 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320명을 대상으로 피부 관리를 하고 싶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키기 위해’가 129명(4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부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 65명(20.3%),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40명(12.5%), ‘피부의 안색 정화를 위해’ 39명(12.2%),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28명(8.8%)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키기 위해 피부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거주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키기 위해 피부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숙·자취·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우 피부의 안색 정화를 위해 피부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11> 피부 관리 하고 싶은 이유

구분	피부 관리 하고 싶은 이유												X ² (p)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피부의 안색 정화를 위해		피부의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의 트러블을 완화 시키기 위해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기타			
	N	%	N	%	N	%	N	%	N	%	N	%		
학년	1학년	12	11.2	12	11.2	21	19.6	48	44.9	6	5.6	8	7.5	17.881 (.057)
	2학년	7	7.9	9	10.1	26	29.2	30	33.7	9	10.1	8	9.0	
	3학년	21	16.9	18	14.5	18	14.5	51	41.1	13	10.5	3	2.4	
한 달 용돈	10만원 이하	27	10.3	33	12.5	56	21.3	107	40.7	24	9.1	16	6.1	7.091 (.214)
	10만원 이상	13	22.8	6	10.5	9	15.8	22	38.6	4	7.0	3	5.3	
거주형태	자택	37	12.1	34	11.1	63	20.6	127	41.5	28	9.2	17	5.6	13.304* (.021)
	하숙·차취·기숙사	3	21.4	5	35.7	2	14.3	2	14.3			2	14.3	
흡연여부	예	3	20.0	3	20.0	2	13.3	5	33.3			2	13.3	4.891 (.429)
	아니오	37	12.1	36	11.8	63	20.7	124	40.7	28	9.2	17	5.6	
하루 수면시간	5시간 미만	7	15.2	6	13.0	11	23.9	16	34.8	4	8.7	2	4.3	7.303 (.949)
	6시간 미만	16	11.9	17	12.7	28	20.9	53	39.6	10	7.5	10	7.5	
	7시간 미만	14	12.3	16	14.0	20	17.5	48	42.1	11	9.6	5	4.4	
	8시간 이상	3	11.5			6	23.1	12	46.2	3	11.5	2	7.7	
음주여부	예	8	13.1	7	11.5	12	19.7	27	44.3	5	8.2	2	3.3	1.285 (.936)
	아니오	32	12.4	32	12.4	53	20.5	102	39.4	23	8.9	17	6.6	
커피	안 마신다	32	12.2	36	13.7	53	20.2	106	40.3	24	9.1	12	4.6	7.816 (.167)
	하루 1잔 이상	8	14.0	3	5.3	12	21.1	23	40.4	4	7.0	7	12.3	
운동횟수 (1주일 기준)	1회	12	17.1	11	15.7	11	15.7	25	35.7	7	10.0	4	5.7	24.488 (.222)
	2회	7	12.1	7	12.1	9	15.5	30	51.7	4	6.9	1	1.7	
	3회	7	28.0	2	8.0	2	8.0	10	40.0	1	4.0	3	12.0	
	4회 이상	2	6.9	5	17.2	7	24.1	9	31.0	3	10.3	3	10.3	
	전혀 못 한다	12	8.7	14	10.1	36	26.1	55	39.9	13	9.4	8	5.8	
비만도	저체중	4	5.3	11	14.5	21	27.6	29	38.2	7	9.2	4	5.3	23.366 (.077)
	정상	33	15.6	27	12.7	40	18.9	85	40.1	17	8.0	10	4.7	
	과체중	1	5.3			4	21.1	10	52.6	1	5.3	3	15.8	
	비만	2	15.4	1	7.7			5	38.5	3	23.1	2	15.4	
합계		40	12.5	39	12.2	65	20.3	129	40.3	28	8.8	19	5.9	

*p<.05

10) 피부 관리에 대한 주관적 의견

다음 <표 12>는 피부 관리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피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가 135명(3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부 관리를 외적으로 자신을 표출하는 것이다.’ 118명(32.0%), ‘피부 관리 시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67명(18.2%), ‘피부 관리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20명(5.4%), ‘정확한 피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잘 할 수 있다’ 14명(3.8%)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거주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하숙·자취·기숙사 생활하는 학생 모두 피부 관리는 피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 피부 관리에 대한 주관적 의견

구분		피부 관리에 대한 주관적 의견												X ² (p)
		피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피부 관리는 외적으로 자신을 표출하는 것이다		피부 관리 시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정확한 피부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잘 할 수 있다		피부 관리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기타		
		N	%	N	%	N	%	N	%	N	%	N	%	
학년	1학년	47	40.9	37	32.2	14	12.2	4	3.5	7	6.1	6	5.2	6.773 (.747)
	2학년	40	37.4	34	31.8	21	19.6	4	3.7	6	5.6	2	1.9	
	3학년	48	32.7	47	32.0	32	21.8	6	4.1	7	4.8	7	4.8	
한 달 용돈	10만원 이하	117	39.1	91	30.4	54	18.1	12	4.0	13	4.3	12	4.0	7.526 (.184)
	10만원 이상	18	25.7	27	38.6	13	18.6	2	2.9	7	10.0	3	4.3	
거주형태	자택	127	36.3	116	33.1	64	18.3	14	4.0	16	4.6	13	3.7	14.960* (.011)
	하숙·자취·기숙사	8	42.1	2	10.5	3	15.8			4	21.1	2	10.5	
흡연여부	예	7	35.0	6	30.0	2	10.0	1	5.0	4	20.0			10.050 (.074)
	아니오	128	36.7	112	32.1	65	18.6	13	3.7	16	4.6	15	4.3	
하루 수면시간	5시간 미만	19	38.0	19	38.0	6	12.0	1	2.0	2	4.0	3	6.0	10.907 (.759)
	6시간 미만	59	38.8	40	26.3	33	21.7	6	3.9	10	6.6	4	2.6	
	7시간 미만	48	35.6	48	35.6	22	16.3	6	4.4	6	4.4	5	3.7	
	8시간 이상	9	28.1	11	34.4	6	18.8	1	3.1	2	6.3	3	9.4	
음주여부	예	26	37.1	24	34.3	14	20.0	1	1.4	4	5.7	1	1.4	3.078 (.688)
	아니오	109	36.5	94	31.4	53	17.7	13	4.3	16	5.4	14	4.7	
커피	안 마신다	113	38.0	98	33.0	50	16.8	9	3.0	15	5.1	12	4.0	5.574 (.350)
	하루 1잔 이상	22	30.6	20	27.8	17	23.6	5	6.9	5	6.9	3	4.2	
운동횟수 (1주일 기준)	1회	28	34.1	26	31.7	16	19.5	2	2.4	4	4.9	6	7.3	18.192 (.575)
	2회	19	29.7	21	32.8	17	26.6			5	7.8	2	3.1	
	3회	13	50.0	9	34.6	3	11.5	1	3.8					
	4회 이상	14	43.8	10	31.3	4	12.5	2	6.3	2	6.3			
	전혀 못 한다	61	37.0	52	31.5	27	16.4	9	5.5	9	5.5	7	4.2	
비만도	저체중	35	41.7	29	34.5	13	15.5	4	4.8	1	1.2	2	2.4	27.405* (.026)
	정상	91	36.8	76	30.8	44	17.8	6	2.4	17	6.9	13	5.3	
	과체중	5	21.7	8	34.8	6	26.1	4	17.4					
	비만	4	26.7	5	33.3	4	26.7			2	13.3			
합계		135	36.6	118	32.0	67	18.2	14	3.8	20	5.4	15	4.1	

*p<.05

11) 학교에서 피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다음 <표 13>는 학교에서 피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267명(72.4%)은 '피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102명(27.6%)은 '피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 비교적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피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학교에서 피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구분	학교에서 피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χ ² (p)	
	예		아니오			
	N	%	N	%		
학년	1학년	99	86.1	16	13.9	21.211*** (.000)
	2학년	79	73.8	28	26.2	
	3학년	89	60.5	58	39.5	
한 달 용돈	10만원 이하	218	72.9	81	27.1	.240 (.624)
	10만원 이상	49	70.0	21	30.0	
거주형태	자택	255	72.9	95	27.1	.848 (.357)
	하숙·자취·기숙사	12	63.2	7	36.8	
흡연여부	예	13	65.0	7	35.0	.572 (.449)
	아니오	254	72.8	95	27.2	
하루 수면시간	5시간 미만	36	72.0	14	28.0	.607 (.895)
	6시간 미만	107	70.4	45	29.6	
	7시간 미만	100	74.1	35	25.9	
	8시간 이상	24	75.0	8	25.0	
음주여부	예	54	77.1	16	22.9	.989 (.320)
	아니오	213	71.2	86	28.8	
커피	안 마신다	218	73.4	79	26.6	.828 (.363)
	하루 1잔 이상	49	68.1	23	31.9	
운동횟수 (1주일 기준)	1회	57	69.5	25	30.5	6.287 (.179)
	2회	53	82.8	11	17.2	
	3회	20	76.9	6	23.1	
	4회 이상	25	78.1	7	21.9	
	전혀 못 한다	112	67.9	53	32.1	
비만도	저체중	63	75.0	21	25.0	2.199 (.532)
	정상	175	70.9	72	29.1	
	과체중	16	69.6	7	30.4	
	비만	13	86.7	2	13.3	
합계		267	72.4	102	27.6	

***p<.001

12) 여고생이 생각하는 피부교육의 범위

다음 <표 14>는 학교에서 피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267명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의 범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192명(7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초 교육’ 44명(16.5%), ‘지속적인 학술활동’ 16명(6.0%), ‘전문적 지식’ 15명(5.6%)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14> 여고생이 생각하는 교육의 범위

구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의 범위								χ ² (p)	
	기초 교육		전문적 지식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지속적인 학술활동			
	N	%	N	%	N	%	N	%		
학년	1학년	16	16.2	5	5.1	68	68.7	10	10.1	5.551 (.475)
	2학년	12	15.2	5	6.3	58	73.4	4	5.1	
	3학년	16	18.0	5	5.6	66	74.2	2	2.2	
한 달 용돈	10만원 이하	32	14.7	12	5.5	161	73.9	13	6.0	2.989 (.393)
	10만원 이상	12	24.5	3	6.1	31	63.3	3	6.1	
거주형태	자택	42	16.5	14	5.5	185	72.5	14	5.5	2.876 (.411)
	하숙·자취·기숙사	2	16.7	1	8.3	7	58.3	2	16.7	
흡연여부	예	3	23.1	1	7.7	7	53.8	2	15.4	3.097 (.377)
	아니오	41	16.1	14	5.5	185	72.8	14	5.5	
하루 수면시간	5시간 미만	8	22.2	2	5.6	24	66.7	2	5.6	12.480 (.188)
	6시간 미만	12	11.2	4	3.7	84	78.5	7	6.5	
	7시간 미만	19	19.0	7	7.0	71	71.0	3	3.0	
	8시간 이상	5	20.8	2	8.3	13	54.2	4	16.7	
음주여부	예	7	13.0	4	7.4	40	74.1	3	5.6	.959 (.811)
	아니오	37	17.4	11	5.2	152	71.4	13	6.1	
커피	안 마신다	32	14.7	11	5.0	160	73.4	15	6.9	4.957 (.175)
	하루 1잔 이상	12	24.5	4	8.2	32	65.3	1	2.0	
운동횟수 (1주일 기준)	1회	11	19.3	2	3.5	41	71.9	3	5.3	7.305 (.837)
	2회	5	9.4	3	5.7	40	75.5	5	9.4	
	3회	4	20.0	2	10.0	12	60.0	2	10.0	
	4회 이상	5	20.0	2	8.0	16	64.0	2	8.0	
	전혀 못 한다	19	17.0	6	5.4	83	74.1	4	3.6	
비만도	저체중	10	15.9	2	3.2	44	69.8	7	11.1	6.137 (.726)
	정상	28	16.0	11	6.3	127	72.6	9	5.1	
	과체중	3	18.8	1	6.3	12	75.0			
	비만	3	23.1	1	7.7	9	69.2			
합계		44	16.5	15	5.6	192	71.9	16	6.0	

13) 학교에서 피부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싶은 이유

다음 <표 15>는 학교에서 피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267명을 대상으로 피부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싶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나의 피부를 개선시키고 싶어서’가 153명(5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의 피부 유형에 맞는 화장품 유형을 선별하고 싶어서’ 55명(20.6%), ‘피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50명(18.7%), ‘내가 관심있는 분야이므로’ 7명(2.6%), ‘전문분야라서’ 2명(0.7%)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15> 학교에서 피부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싶은 이유

구분		학교에서 피부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싶은 이유										X ² (p)
		피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나의 피부를 개선시키고 싶어서		나의 피부 유형에 맞는 화장품을 선별하고 싶어서		내가 관심있는 분야이므로		전문분야라서		
		N	%	N	%	N	%	N	%	N	%	
학년	1학년	13	13.1	58	58.6	22	22.2	4	4.0	2	2.0	11.157 (.193)
	2학년	15	19.0	42	53.2	20	25.3	2	2.5			
	3학년	22	24.7	53	59.6	13	14.6	1	1.1			
한 달 용돈	10만원 이하	37	17.0	126	57.8	47	21.6	6	2.8	2	.9	3.061 (.548)
	10만원 이상	13	26.5	27	55.1	8	16.3	1	2.0			
거주형태	자택	47	18.4	148	58.0	51	20.0	7	2.7	2	.8	2.213 (.697)
	하숙·자취·기숙사	3	25.0	5	41.7	4	33.3					
흡연여부	예	2	15.4	10	76.9	1	7.7					2.565 (.633)
	아니오	48	18.9	143	56.3	54	21.3	7	2.8	2	.8	
하루 수면시간	5시간 미만	8	22.2	20	55.6	7	19.4	1	2.8			9.684 (.644)
	6시간 미만	22	20.6	64	59.8	20	18.7	1	.9			
	7시간 미만	17	17.0	55	55.0	21	21.0	5	5.0	2	2.0	
	8시간 이상	3	12.5	14	58.3	7	29.2					
음주여부	예	11	20.4	36	66.7	6	11.1	1	1.9			4.752 (.314)
	아니오	39	18.3	117	54.9	49	23.0	6	2.8	2	.9	
커피	안 마신다	43	19.7	122	56.0	46	21.1	5	2.3	2	.9	2.087 (.720)
	하루 1잔 이상	7	14.3	31	63.3	9	18.4	2	4.1			
운동횟수 (1주일 기준)	1회	14	24.6	37	64.9	6	10.5					21.529 (.159)
	2회	11	20.8	29	54.7	11	20.8	1	1.9	1	1.9	
	3회	3	15.0	11	55.0	6	30.0					
	4회 이상	3	12.0	16	64.0	3	12.0	3	12.0			
	전혀 못 한다	19	17.0	60	53.6	29	25.9	3	2.7	1	.9	
비만도	저체중	8	12.7	38	60.3	13	20.6	3	4.8	1	1.6	9.514 (.658)
	정상	36	20.6	98	56.0	36	20.6	4	2.3	1	.6	
	과체중	1	6.3	11	68.8	4	25.0					
	비만	5	38.5	6	46.2	2	15.4					
합계		50	18.7	153	57.3	55	20.6	7	2.6	2	.7	

14) 학교에서 피부 관리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싶지 않은 이유

다음 <표 16>는 학교에서 피부 관리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싶지 않은 102명을 대상으로 배우고 싶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인터넷을 통해서 피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므로’가 30명(2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부 관리 지식을 배워서까지 피부 관리를 하고 싶지 않으므로’ 29명(28.4%), ‘피부 관리 지식을 배우는 것이 귀찮으므로’ 17명(16.7%),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이므로’ 14명(13.7%), ‘잡지를 통해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5명(4.9%)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흡연여부, 커피 섭취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먼저 흡연여부에 따라서는 흡연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피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또는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이므로 배우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나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피부 관리 지식을 배워서까지 피부 관리를 하고 싶지 않으므로 배우고 싶지 않다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 또한 커피 섭취여부에 따라서도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경우 피부 관리 지식을 배워서까지 피부 관리를 하고 싶지 않으므로 배우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 피부 관리 지식을 배우는 것이 귀찮으므로 배우고 싶지 않다고 하여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16> 학교에서 피부 관리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싶지 않은 이유

구분	학교에서 피부 관리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싶지 않은 이유										X ² (p)			
	잡지를 통해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서 피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므로		피부 관리 지식을 배워서까지 피부 관리를 하고 싶지 않으므로		피부 관리 지식을 배우는 것이 귀찮으므 로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이므 로			기타		
	N	%	N	%	N	%	N	%	N	%		N	%	
학년	1학년		5	31.3	8	50.0	1	6.3	2	12.5			9.732 (.464)	
	2학년	1	3.6	8	28.6	6	21.4	4	14.3	6	21.4	3		10.7
	3학년	4	6.9	17	29.3	15	25.9	12	20.7	6	10.3	4		6.9
한 달 용돈	10만원 이하	5	6.2	23	28.4	24	29.6	15	18.5	9	11.1	5	6.2	4.675 (.457)
	10만원 이상			7	33.3	5	23.8	2	9.5	5	23.8	2	9.5	
거주형태	자택	5	5.3	29	30.5	28	29.5	15	15.8	11	11.6	7	7.4	7.284 (.200)
	하숙·자취·기숙사			1	14.3	1	14.3	2	28.6	3	42.9			
흡연여부	예			2	28.6					2	28.6	3	42.9	19.155** (.002)
	아니오	5	5.3	28	29.5	29	30.5	17	17.9	12	12.6	4	4.2	
하루 수면시간	5시간 미만			4	28.6	4	28.6	4	28.6	2	14.3			9.700 (.838)
	6시간 미만	2	4.4	11	24.4	14	31.1	7	15.6	6	13.3	5	11.1	
	7시간 미만	2	5.7	14	40.0	8	22.9	5	14.3	5	14.3	1	2.9	
	8시간 이상	1	12.5	1	12.5	3	37.5	1	12.5	1	12.5	1	12.5	
음주여부	예			5	31.3	2	12.5	4	25.0	2	12.5	3	18.8	7.365 (.195)
	아니오	5	5.8	25	29.1	27	31.4	13	15.1	12	14.0	4	4.7	
커피	안 마신다	4	5.1	25	31.6	27	34.2	10	12.7	12	15.2	1	1.3	24.598*** (.000)
	하루 1잔 이상	1	4.3	5	21.7	2	8.7	7	30.4	2	8.7	6	26.1	
운동횟수 (1주일 기준)	1회	2	8.0	7	28.0	7	28.0	6	24.0	1	4.0	2	8.0	14.874 (.784)
	2회			2	18.2	4	36.4	1	9.1	3	27.3	1	9.1	
	3회			2	33.3	3	50.0					1	16.7	
	4회 이상			2	28.6	2	28.6			2	28.6	1	14.3	
	전혀 못 한다	3	5.7	17	32.1	13	24.5	10	18.9	8	15.1	2	3.8	
비만도	저체중			7	33.3	10	47.6	2	9.5	2	9.5			11.548 (.713)
	정상	5	6.9	20	27.8	17	23.6	13	18.1	11	15.3	6	8.3	
	과체중			2	28.6	2	28.6	1	14.3	1	14.3	1	14.3	
	비만			1	50.0			1	50.0					
합계		5	4.9	30	29.4	29	28.4	17	16.7	14	13.7	7	6.9	

p<.01, *p<.001

3.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아내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일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거하여 직접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많은 변수들을 적은 수의 몇 가지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그 내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한 각 문항을 몇 가지 소수의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각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지 곧 타당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추출법으로 주성분법(Principle Components)을 실시하였으며, 지정한 고유치 이상의 값을 갖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요인회전과 관련하여 베리맥스(Varimax)회전을 실시하였다. 베리맥스는 요인을 단순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각 변수의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의 수용기준은 보통 ± 0.30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보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은 ± 0.40 이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0.40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각 요인이 전체 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고유치(eigen value)는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곧 본 연구의 요인분석은 고유치 1 이상, 요인적재량 ±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직각회전방법 중 베리맥스 회전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 문항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 값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50 이상이면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표 17>은 건강신념모델에 대한 25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은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

항들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요인 1(14.165%)은 “유의성”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12.069%)는 “자아효능감”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3(11.361%)은 “민감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9.422%)는 “장애성”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5(7.527%)는 “심각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5개의 요인 적재 값이 ± 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7> 건강신념모델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분	성분				
	유익성	자아효능감	민감성	장애성	심각성
유익성 1	.829	.055	.149	.017	.017
유익성 2	.820	.061	.152	.128	.056
유익성 3	.755	.063	.133	.288	.065
유익성 4	.671	.033	.162	.291	.044
자아효능감 4	-.109	.747	.127	.099	.023
자아효능감 5	.025	.715	.127	.057	.062
자아효능감 6	.180	.637	-.064	.152	-.044
자아효능감 2	.089	.616	-.024	-.024	-.056
자아효능감 7	-.289	.588	.050	.277	-.076
자아효능감 3	.453	.544	.084	-.173	.089
자아효능감 1	.246	.475	-.012	.039	.114
자아효능감 8	-.099	.432	.054	.342	-.219
민감성 1	.166	-.018	.774	.009	.050
민감성 2	.186	.030	.738	.093	.037
민감성 3	.312	-.058	.698	.073	-.092
민감성 5	-.029	.108	.656	.151	.048
민감성 4	.056	.129	.591	.184	.076
장애성 3	.078	.151	.077	.797	.134
장애성 4	.232	.080	.230	.687	.077
장애성 2	.470	.114	.197	.597	.092
장애성 1	.367	.131	.194	.546	.167
심각성 3	-.016	.015	.018	.126	.795
심각성 1	.310	.033	.207	.136	.616
심각성 2	-.208	-.056	.245	.182	.596
심각성 4	.175	-.011	-.230	-.094	.583
고유값	3.541	3.017	2.840	2.355	1.882
분산설명(%)	14.165	12.069	11.361	9.422	7.527
누적설명(%)	14.165	26.234	37.595	47.016	54.543
신뢰도	.871	.756	.769	.801	.695

4. 건강신념모델

다음은 건강신념모델에 대해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피부 관리 행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사후검정 방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1) 전반적인 건강신념모델

다음 <표 18>는 전반적인 건강신념모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유의성’(M=4.1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각성’(M=3.49), ‘장애성’(M=3.43), ‘민감성’(M=3.07), ‘자아효능감’(M=2.78)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신념모델은 평균 3.27점으로 나타났다.

<표 18> 전반적인 건강신념모델

	구분	평균	표준편차
건강신념모델	민감성	3.07	.776
	유의성	4.13	.749
	장애성	3.43	.649
	심각성	3.49	.813
	자아효능감	2.78	.587
	전체	3.27	.445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신념모델 차이

다음 <표 19>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건강신념모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먼저 학년에 따라서는 자아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1학년의 경우 2-3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서는 유의성, 장애성, 심각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택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하숙·자취·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건강신념모델과 하위요인별 유의성, 장애성,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여부에서는 민감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음주를 하는 경우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섭취여부에서는 유의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경우 마시는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횟수에서는 자아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비교적 1주일 기준 운동 횟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한 달 용돈, 흡연여부, 하루 수면시간, 비만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1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신념모델 차이

구분	건강신념모델										전체		
	민감성		유익성		장애성		심각성		자아효능감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학년	1학년	3.18	.725	4.18	.700	3.37	.659	3.59	.703	2.90 ^b	.576	3.35 ^b	.392
	2학년	3.03	.828	4.00	.850	3.43	.701	3.41	.941	2.67 ^a	.626	3.20 ^a	.532
	3학년	3.03	.773	4.18	.700	3.48	.600	3.47	.790	2.77 ^{ab}	.550	3.27 ^{ab}	.404
	F-value(p)	1.432(.240)		2.126(.121)		.828(.438)		1.515(.221)		4.577 [*] (.011)		3.311 [*] (.038)	
한달 용돈	10만원 이하	3.09	.785	4.15	.740	3.41	.652	3.50	.799	2.79	.586	3.28	.434
	10만원 이상	3.01	.735	4.06	.788	3.52	.633	3.46	.874	2.75	.593	3.25	.488
	t-value(p)	.752(.452)		.816(.415)		-1.228(.220)		.358(.721)		.502(.616)		.513(.608)	
거주 형태	자택	3.09	.765	4.17	.705	3.46	.635	3.51	.804	2.79	.567	3.29	.420
	하숙·자취·가족사	2.80	.929	3.42	1.131	2.97	.740	3.13	.922	2.61	.879	2.92	.692
	t-value(p)	1.586(.114)		4.339 ^{***} (.000)		3.204 ^{**} (.001)		1.972 [*] (.049)		1.361(.174)		3.642 ^{***} (.000)	
흡연 여부	예	3.38	.770	4.10	.758	3.44	.673	3.47	.888	2.82	.591	3.34	.497
	아니오	3.06	.773	4.13	.749	3.43	.648	3.49	.810	2.78	.587	3.27	.442
	t-value(p)	1.818(.070)		-.184(.854)		.037(.970)		-.076(.939)		.276(.783)		.685(.494)	
하루 수면 시간	5시간 미만	3.22	.765	4.17	.814	3.38	.594	3.58	.763	2.78	.609	3.31	.473
	6시간 미만	3.09	.724	4.15	.629	3.51	.637	3.51	.714	2.79	.537	3.30	.373
	7시간 미만	3.07	.774	4.11	.833	3.40	.641	3.49	.866	2.77	.586	3.26	.453
	8시간 이상	2.81	.983	4.03	.815	3.30	.792	3.21	1.051	2.81	.782	3.15	.637
	F-value(p)	1.870(.134)		.298(.827)		1.363(.254)		1.487(.218)		.045(.987)		1.170(.321)	
음주 여부	예	3.24	.779	4.14	.773	3.39	.553	3.57	.926	2.78	.562	3.31	.436
	아니오	3.03	.771	4.13	.744	3.44	.669	3.47	.785	2.78	.593	3.26	.447
	t-value(p)	2.029 [*] (.043)		.114(.909)		-.615(.539)		.948(.344)		-.079(.937)		.836(.404)	
커피	안 마신다	3.08	.777	4.18	.732	3.42	.680	3.51	.814	2.80	.573	3.29	.438
	하루 1잔 이상	3.05	.773	3.91	.784	3.50	.496	3.42	.812	2.72	.640	3.21	.471
	t-value(p)	.262(.794)		2.764 ^{**} (.006)		-.937(.349)		.795(.427)		1.016(.310)		1.274(.203)	
운동 횟수 (1주 일 기준)	1회	2.97	.778	4.27	.654	3.40	.634	3.53	.829	2.84 ^{ab}	.588	3.29	.432
	2회	3.22	.723	4.16	.737	3.38	.731	3.53	.771	2.90 ^b	.506	3.34	.415
	3회	3.21	.787	4.18	.811	3.23	.674	3.53	.901	2.86 ^{ab}	.503	3.31	.446
	4회 이상	3.09	.707	4.19	.741	3.36	.678	3.55	.802	3.05 ^b	.706	3.37	.457
	전혀 못 한다	3.05	.802	4.03	.783	3.52	.607	3.43	.816	2.65 ^a	.574	3.21	.456
F-value(p)	1.198(.311)		1.570(.182)		1.580(.179)		.326(.861)		5.097 ^{**} (.001)		1.603(.173)		
비만 도	저체중	3.14	.658	4.18	.702	3.38	.627	3.58	.779	2.84	.590	3.32	.405
	정상	3.05	.807	4.14	.772	3.44	.675	3.45	.803	2.79	.584	3.27	.460
	과체중	3.21	.747	3.96	.706	3.41	.342	3.50	.991	2.57	.575	3.20	.430
	비만	2.91	.904	3.98	.697	3.63	.687	3.58	.910	2.68	.601	3.23	.438
	F-value(p)	.771(.511)		.743(.527)		.648(.585)		.573(.633)		1.449(.228)		.570(.635)	
합계	3.07	.776	4.13	.749	3.43	.649	3.49	.813	2.78	.587	3.27	.445	

*p<.05, **p<.01, ***p<.001

Duncan : a<b

3) 조사대상자의 피부 관리 행동에 따른 건강신념모델 차이

다음 <표 20>는 조사대상자의 피부 관리 행동에 따라 건강신념모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피부 관리 관심도에 따라서는 민감성, 유의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피부 관리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민감성, 유의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피부상태에서는 유의성, 자아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모세혈관 확장인 피부상태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안 후 유분감이 있는 피부상태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관리 방법에서는 민감성, 유의성, 자아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전문 관리실이나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민감성, 자아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 홈 케어로 관리하는 경우 유의성에 있어 가장 높게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화장품 구매방법에서는 민감성, 유의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대체적으로 직접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주위 권유로 구매하는 경우 민감성, 유의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구매횟수에서는 민감성, 유의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 비교적 화장품 구매횟수가 많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신념모델과 하위요인별 민감성, 유의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는 세안제에서는 민감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젤, 오일, 로션, 크림 등 기타 세안제를 사용하는 경우 비누를 사용하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전반적인 건강신념모델과 하위요인별 민감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상담여부에서는 민감성, 자아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피부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 상담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건강신념모델과 하위요인별 민감성,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관리 의사 여부에서는 민감성, 유의성, 심각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 본인의 피부에 대해 알아보고 피부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 민감성, 유의성, 심각성에 대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 교육 필요성에서는 민감성, 유의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1$), 피부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민감성, 유의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조사대상자의 피부 관리 특성에 따른 건강신념모델 차이

구분	건강신념모델										전체		
	민감성		유익성		장애성		심각성		자아효능감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피부 관리 관심도	있다	3.17	.735	4.20	.698	3.43	.638	3.55	.758	2.85	.564	3.33	.391
	없다	2.63	.814	3.81	.891	3.46	.701	3.19	.988	2.47	.596	2.99	.560
	t-value(p)	5.220***(.000) 3.848***(.000) -.348(.728) 3.278**(.001) 4.841***(.000) 5.880***(.000)											
주관적 피부 상태	세안 후 당김	2.94	.748	4.22 ^{ab}	.714	3.53	.672	3.53	.719	2.79 ^{abc}	.514	3.28	.387
	세안 후 유분감	2.84	.785	3.81 ^a	.748	3.24	.532	3.28	.788	3.06 ^c	.568	3.20	.428
	트리플	3.18	.734	4.17 ^{ab}	.726	3.45	.585	3.52	.770	2.82 ^{abc}	.606	3.32	.421
	모세혈관 확장	3.22	.607	4.30 ^b	.537	3.15	.876	3.85	.648	2.95 ^{bc}	.739	3.40	.281
	넓은 모공	3.10	.812	4.16 ^{ab}	.705	3.44	.708	3.46	.928	2.71 ^{ab}	.602	3.26	.500
	칙칙한 피부	3.12	.916	3.87 ^a	.944	3.29	.669	3.35	1.009	2.57 ^a	.576	3.13	.575
	F-value(p)	1.625(.152) 2.297*(.045) 1.585(.164) 1.008(.412) 2.523*(.029) 1.460(.202)											
피부 관리 방법	전문관리실/병·의원	3.59 ^b	.758	4.04 ^{ab}	.815	3.65	.649	3.63	.872	2.92 ^b	.621	3.46 ^b	.503
	홈 케어	3.14 ^a	.747	4.29 ^b	.696	3.43	.646	3.56	.722	2.95 ^b	.583	3.38 ^{ab}	.386
	화장품 구입 서비스	3.20 ^a	.953	3.92 ^a	.874	3.20	.631	3.49	1.080	2.82 ^{ab}	.604	3.24 ^a	.554
	안 한다	2.96 ^a	.752	4.05 ^{ab}	.750	3.44	.649	3.42	.837	2.64 ^a	.548	3.18 ^a	.446
	F-value(p)	5.193**(.002) 3.587*(.014) 1.717(.163) .975(.404) 8.788***(.000) 6.925***(.000)											
화장품 구매 방법	직접 구매	3.17	.723	4.21 ^b	.639	3.49	.604	3.63 ^b	.730	2.90 ^b	.562	3.37 ^c	.348
	부모님이 구매	2.93	.797	4.02 ^{ab}	.839	3.35	.691	3.33 ^{ab}	.894	2.63 ^a	.592	3.14 ^{ab}	.522
	친구한테 선물	2.82	.936	3.67 ^a	1.115	3.29	.689	3.19 ^a	.806	2.60 ^a	.659	3.02 ^a	.389
	주위 권유	3.17	.864	4.28 ^b	.719	3.52	.704	3.38 ^{ab}	.817	2.78 ^a	.559	3.31 ^{bc}	.488
	F-value(p)	3.272*(.021) 3.869*(.010) 1.577(.195) 4.512**(.004) 5.808***(.001) 9.313***(.000)											
화장품 구매 횟수	구매 안함	2.72 ^a	.849	3.73 ^a	.983	3.29	.764	3.22 ^a	.926	2.54 ^a	.606	2.99 ^a	.569
	년 1-2회	3.02 ^b	.756	4.12 ^b	.698	3.49	.565	3.45 ^{ab}	.770	2.80 ^b	.558	3.27 ^b	.396
	년 3-4회	3.23 ^{bc}	.679	4.27 ^b	.640	3.39	.697	3.49 ^{ab}	.740	2.81 ^b	.547	3.33 ^{bc}	.362
	년 5-6회	3.23 ^{bc}	.658	4.40 ^b	.494	3.58	.686	3.78 ^{bc}	.793	2.94 ^b	.633	3.47 ^{bc}	.359
	년 6회 이상	3.41 ^c	.783	4.31 ^b	.576	3.47	.511	3.89 ^c	.749	3.01 ^b	.587	3.51 ^c	.341
	F-value(p)	7.089***(.000) 7.796***(.000) 1.705(.148) 5.455***(.000) 5.210***(.000) 12.65***(.000)											
사용하는 세안제	클렌징 폼	3.15 ^b	.752	4.19	.723	3.43	.653	3.56 ^b	.764	2.85 ^b	.574	3.33 ^b	.411
	비누	2.88 ^a	.800	4.00	.788	3.44	.592	3.27 ^a	.868	2.58 ^a	.539	3.12 ^a	.470
	기타	3.10 ^b	.795	4.12	.783	3.39	.786	3.61 ^b	.888	2.91 ^b	.687	3.33 ^b	.496
	F-value(p)	4.155*(.016) 2.247(.107) .069(.934) 5.042**(.007) 8.217***(.000) 8.695***(.000)											
피부 상담 여부	있다	3.48	.674	4.20	.717	3.49	.624	3.64	.747	2.93	.624	3.45	.404
	없다	2.96	.764	4.11	.757	3.41	.655	3.45	.827	2.74	.570	3.22	.444
	t-value(p)	5.598***(.000) 1.002(.317) .967(.334) 1.930(.054) 2.517*(.012) 4.076***(.000)											
피부 관리 의사 여부	있다	3.15	.721	4.20	.666	3.44	.639	3.55	.755	2.80	.582	3.32	.391
	없다	2.59	.942	3.64	1.036	3.40	.712	3.08	1.041	2.65	.605	2.99	.633
	t-value(p)	4.813***(.000) 5.051***(.000) .338(.736) 3.881***(.000) 1.709(.088) 5.020***(.000)											
피부 관리 교육 필요성	예	3.21	.748	4.20	.719	3.41	.643	3.61	.771	2.84	.567	3.35	.411
	아니오	2.73	.741	3.95	.799	3.50	.661	3.17	.839	2.62	.610	3.09	.476
	t-value(p)	5.516***(.000) 2.827**(.005) -1.241(.215) 4.723***(.000) 3.275**(.001) 5.202***(.000)											
	합계	3.07	.776	4.13	.749	3.43	.649	3.49	.813	2.78	.587	3.27	.445

*p<.05, **p<.01, ***p<.001

Duncan : a<b<c

4) 건강신념모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다음 <표 21>는 건강신념모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민감성은 유익성($r=.362$, $p<.001$), 장애성($r=.142$, $p<.01$), 심각성($r=.419$, $p<.001$), 자아효능감($r=.157$,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유익성은 장애성($r=.201$, $p<.001$), 심각성($r=.468$, $p<.001$), 자아효능감($r=.19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장애성은 심각성($r=.26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심각성은 자아효능감($r=.319$,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피부 관리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하는 학생들의 피부 관리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피부 관리에 대한 유익성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 건강신념모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구분	민감성	유익성	장애성	심각성	자아효능감
민감성	1				
유익성	.362***	1			
장애성	.142**	.201***	1		
심각성	.419***	.468***	.266***	1	
자아효능감	.157**	.199***	.019	.319***	1

** $p<.01$, *** $p<.001$

5) 피부 관리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다음 <표 22>는 피부 관리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신념모델의 주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먼저 검토한 결과 Model Chi-Square값은

47.473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분석모형의 독립변수 계수가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의 Nagelkerke R^2 는 19.9%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속변수의 변동 중 19.9%정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이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부 관리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신념모델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아효능감이 피부 관리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2.942배)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 피부 관리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구분	B	S.E.	Wald	Exp(B)	95% CI
민감성	.826	.223	13.713	2.283	1.475-3.535
유익성	.335	.219	2.345	1.398	.910-2.148
장애성	-.370	.247	2.257	.690	.426-1.120
심각성	-.096	.221	.189	.908	.588-1.402
자아효능감	1.079	.290	13.848***	2.942	1.666-5.193
(상수)	-3.476	1.161	8.971	.031	
-2Log-Likelihood	296.113				
Model Chi-Square(p-value)	47.432***	df=5	p=.000		
Nagelkerke R^2	.199				

*** $p < .001$

6) 피부 상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다음 <표 23>는 피부 상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신념모델의 주요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먼저 검토한 결과 Model Chi-Square값은 36.037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분석모형의 독립변수 계수가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의 Nagelkerke R^2 는 14.3%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속변수의 변동 중 14.3%정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이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피부 상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신념모델 요인을 분석한 결과 건강신념모델의 하위요인은 피부 상담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23> 피부 상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구분	B	S.E.	Wald	Exp(B)	95% CI
민감성	1.055	.217	23.729	2.872	1.879-4.391
유익성	-.220	.212	1.078	.802	.529-1.216
장애성	.125	.221	.323	1.134	.735-1.748
심각성	-.120	.208	.335	.887	.590-1.333
자아효능감	.461	.241	3.649	1.586	.988-2.545
(상수)	-5.070	1.209	17.582	.006	
-2Log-Likelihood	352.365				
Model Chi-Square(p-value)	36.037***	df=5	p=.000		
Nagelkerke R^2	.143				

*** $p < .001$

7) 피부 관리 의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다음 <표 24>는 피부 관리 의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신념모델의 주요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먼저 검토한 결과 Model Chi-Square 값은 33.716으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분석모형의 독립변수 계수가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의 Nagelkerke R^2 는 16.1%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속변수의 변동 중 16.1%정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이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부 관리 의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신념모델 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감성이 피부 관리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즉, 민감성이 높을수록(7.153배) 피부 관리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4> 피부 관리 의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구분	B	S.E.	Wald	Exp(B)	95% CI
민감성	.646	.242	7.153**	1.908	1.188-3.064
유익성	.641	.245	6.859	1.898	1.175-3.067
장애성	-.359	.276	1.694	.699	.407-1.199
심각성	.218	.248	.775	1.244	.765-2.020
자아효능감	.013	.304	.002	1.013	.559-1.838
(상수)	-2.052	1.186	2.993	.128	
-2Log-Likelihood	255.328				
Model Chi-Square(p-value)	33.716***	df=5	p=.000		
Nagelkerke R^2	.161				

** $p < .01$, *** $p < .001$

8) 피부 관리 교육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다음 <표 25>는 피부 관리 교육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신념모델의 주요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먼저 검토한 결과 Model Chi-Square값은 47.072으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분석모형의 독립변수 계수가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의 Nagelkerke R^2 는 17.3%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속변수의 변동 중 17.3%정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이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부 관리 교육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신념모델 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감성, 장애성, 심각성이 피부 관리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민감성이 높을수록(2.025배) 피부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성이 높을수록(0.575배), 심각성이 높을수록(1.607배) 피부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 피부 관리 교육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구분	B	S.E.	Wald	Exp(B)	95% CI
민감성	.705	.188	14.153***	2.025	1.402-2.924
유익성	.003	.194	.000	1.003	.686-1.466
장애성	-.553	.207	7.145**	.575	.383-.863
심각성	.474	.194	5.954*	1.607	1.098-2.353
자아효능감	.389	.235	2.729	1.475	.930-2.339
(상수)	-1.911	1.008	3.597	.148	
-2Log-Likelihood	388.011				
Model Chi-Square(p-value)	47.072***	df=5	p=.000		
Nagelkerke R^2	.173				

* $p < .05$, ** $p < .01$, *** $p < .001$

IV. 고찰

경제적인 발전은 풍족한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 이외에도 여성들로 하여금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높게 나타나며 미의 일차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피부 관리로 아름다움의 인식이 되어 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인간에 있어서 현저한 신체적 발육발달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이며 다른 시기보다 개인의 훈련 가능성과 교육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기이므로 개인의 신체의 형태와 기능,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인 면에 영향을 주며 이 때 교육된 것은 일생의 피부 건강관리에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미치며 생애 과정의 생활을 좌우하다고 할 만큼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연옥(1998)의 연구에서 금연 교육처럼 지식의 변화가 행위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밝혔고 정종은(1999)은 청소년 시기에 금연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연구 결과를 보고 하였다. 또한 김보경(2007)의 연구에서는 미용 교육 프로그램이 여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를 보였으며 피부 미용 교육 프로그램이 피부 지식과 피부 관리 행위에 효과를 미쳤다는 정은숙(2005)의 연구, 미용 교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정신건강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 전용수(2007)등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할 때 피부 미용 교육 프로그램은 여중생들에게 바른 피부 관리 습관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되었다. 본 연구는 건강 신념 이론을 바탕으로 여 고등학생들의 피부 관리 선호도와 요인들 이상적인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지식 교육의 기초 자료서의 청소년들의 피부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 결과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피부 관리 관심도를 살펴 본 분석 결과 피부 관리에 관심여부를 볼 때, 369명 중 304명(82.4%)은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 내었고 65명(17.6%)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운동 횟수가 많을수록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정(2008)의 연구에서는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65.2%로 여성들의 미용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도가 높은 집단은 20~24세 여성(73.4%)이며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30~34세 집단(50.1%)로 나타났다.

김은자(2005)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있다가 50.1% 보통이 38.3%, 낮다가 11.6%로 역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고 오영진(2005)의 연구에서도 ‘나는 외모에 민감한 편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60.3%가 민감하다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외모, 미용, 피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하면 피부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피부 관리 행동에서는 피부 관리를 하지 않는 학생이 50.7%, 홈케어로 관리하는 학생이 37.9%, 화장품 구입시 서비스로 관리하는 학생과 병원, 전문 관리실에서 관리 받은 학생은 5.7%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와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 홈케어로 피부 관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를 하는 경우 전문 관리실이나 병원을 이용하여 피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구매의 경우 직접 구매 하는 경우가 53.1%로 높게 나타났으며 , 화장품의 구매 횟수의 경우 년 1~2회가 37.7%로 높게 나타났다.

박현진(2009)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직접 구매를 하였으며 충동 구매와 목적 지향성, 상표 충성성으로 인해 화장품을 구매하였지만 화장품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로 “피부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남성적 매력을 더 하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특정 목적 충족을 위해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향후 여성들만이 아닌 남성들의 화장품

또한 세분화 되고 다양화 되어 피부를 보호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피부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78.0%로 나타났으며 음주를 하는 경우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피부 상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향숙과 오정숙(2007)의 연구에서는 여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 그리고 신장이 작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건강관리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피부 관리 의사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본인 피부에 대해 알아보고 관리를 하고 싶다(86.7%)고 했으며 대체로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키기 위해 피부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의견에서는 ‘피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가 36.6%, ‘피부 관리를 외적으로 자신을 표출하는 것이다’ 32.0%로 피부 건강과 사람에게 표출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많이 나타났으며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하숙, 자취,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 모두 피부 관리는 피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수정·강수경(2010)의 선행 논문에서는 남·여학생 모두 여드름을 가장 큰 피부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수현((2003)연구에서도 여대생의 피부 고민은 여드름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영란(2005)은 20대 남성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이 여드름으로 제시하여 트러블 완화를 시키기 위해 피부 관리를 하고 싶다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또한 박정신(2003)에 따르면 여드름이 여대학생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이처럼 트러블은 피부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피부 관리 지식과 행위가 필요 한다고 본다.

피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72.4%로 학년이 낮을수록 피부에

대한 교육이 필요로 했으며 교육의 범위에서는 71.9%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김숙은(2006)의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사회활동을 하는 관계로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적극적인 관리보다는 소극적인 관리 형태로 대처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부 관리를 한다거나 화장품을 쓰는데 있어 매우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와 조사 대상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생 피부 관리에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하여 연구한 국내 논문이 없어서 비교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익성, 심각성, 장애성,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 나타나 다른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건강신념 모델이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 관심도에 따른 건강 신념 변수들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민감성, 유익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 장애성이 낮을수록 피부 관리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익성과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장애성이 낮을수록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채효숙(2001),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운동의 장애성이 낮게 나타난 강영미(1999)의 연구와 일치하며, 유익성이 높고 , 장애성이 낮을 때 건강행위 이행을 잘하는 것으로 장경자(1982), 이정희(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황정해(1993)의 연구에서는 심질환 환자의 자기건강관리는 질병에 대한 지식, 인지된 장애, 민감성, 건강동기, 심각성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미혼이고 여자, 교육수준과 가계월수입 높거나 많을수록 자기건강관리가 높았으며 Kegeles(1980)는 치과 방문을 중심으로 한 예방적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에 대한 신념에 의해 구강검사를 하는 아동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박태남(1988) 결핵환자 가족의 X-선 검진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유익성이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신념모델을 이용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은 높고 장애성이 낮을 때 건강행위 이행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신념변수들간의 상관관계에서 민감성은 유익성, 장애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이 상관관계를, 장애성은 심각성과 상관관계를 심각성은 자아효능감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피부 관리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하는 학생들의 피부 관리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피부 관리에 대한 유익성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명희(1997)의 연구에서 심각성과 유익성이 높으면 운동 및 식이요법 수행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고 양승애(1997)의 연구에서 유익성과 장애성간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 것은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신념 변수에 대한 지각 정도와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는 민감성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유의성에서는 자택에 거주를 하는 사람과 커피를 마시지 않을 경우에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성과 심각성에서는 자택에서 거주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 하숙, 자취,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아효능감은 1학년의 경우 2-3학년에 비해 자아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구미옥 (1992)의 당뇨병환자, 오복자(1994) 위암환자, 남명희(1997) 관상동맥환자, 장은주(1997) 현대인들의 생활만족도, 김순봉(1998)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강미영(1999)의 골다공증환자, 신주영(1999) 관상동맥환자, 최정희(2000)여대생, 김민희(2000) 비만아동, 김소희(2001) 복막투석환자와 자기효능과의 관계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간호행위, 건강증진 행위, 운동 및 식이 요법, 치료이행 정도가 높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에게 피부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피부 대한 관심도와 피부의 유익성을 높일 수 있는 피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부 관리 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2.942배)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이 낮을수록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리(1997), 김복자(2001), 채효숙(2001)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피부 관리 의사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민감성이 높을수록(7.153배) 피부 관리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illman(1997) 여성의 유방암예방을 위한 자가 검진에 대한 연구에서 민감성과 유익성이 높은 대상자가 예방적 건강행위의 이행이 높은 것을 나타나 본 연구와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부 관리 교육의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민간성이 높을수록(2.025배), 장애성이 높을수록(0.575배), 심각성이 높을수록(1.607배) 피부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채효숙(2001) 장애성이 높을수록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변수를 같이 보면 일치하게 나타났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정해진 교과목 이외에 교육부를 통한 음주, 흡연, 성교육, 과학의 날 등과 같은 교육이 시청각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피부 건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청소년의 아름다운 피부가 유지 되어 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심한 여고생들에게 올바른 피부 미용 교육 프로그램이 피부 관리에 효과적으로 형성되기 위하여 건강신념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피부 관리의 선호도와 행위에 관련된 요인을 비교 분석 하여 여고생들이 이상적인 피부 관리 방법과 피부 지식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재학 중인 여고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으로 수집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369부를 분석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v. 14.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빈도분석, 교차 분석, 독립표본(t-test),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 상관관계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등의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부 관리에 관심도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르면 학년이 낮을수록, 운동 횟수가 많을수록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둘째, 일반적 특성 및 피부 관리 행동의 차이를 보면 피부 관리를 하지 않는 학생이 50.7% 높았으며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와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홈 케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를 하는

경우에 전문 관리실이나 병원을 이용하여 피부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화장품의 구매에 따라서는 직접 구매 하는 경우가 53.1%로 높게 나타났으며, 화장품의 구매 횟수의 경우 년 1~2회가 37.7%로 높게 나타났다. 화장품 구매의 경우커피 섭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p < .01$) 화장품 구매 횟수에서는 수면 시간, 운동 횟수, 비만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피부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78.0%로 나타났으며 음주를 하는 경우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피부 상담 경험이 많은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1$)

셋째, 피부 관리 의사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본인 피부에 대해 알아보고 관리를 하고 싶다(86.7%)고 했으며 대체로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키기 위해 피부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의견에서는 ‘피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가 36.6%, ‘피부 관리를 외적으로 자신을 표출하는 것이다’ 32.0%로 피부 건강과 사람에게 표출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많이 나타났으며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하숙, 자취,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 모두 피부 관리는 피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넷째, 피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서는 피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72.4%로 학년이 낮을수록 피부에 대한 교육이 필요로 했으며 교육의 범위에서는 71.9%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피부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싶은 이유는 57.3%가 ‘나의 피부를 개선시키

고 싶다'고 답했으며 20.6%가 '나의 피부 유형에 맞는 화장품 유형을 선별하고 싶어서'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면 배우고 싶지 않은 이유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피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므로'가 29.4%, '피부관리 지식을 배워서 까지 피부 관리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28.4%로 나타났으며 피부 관리를 하고 싶지 않는 이유에서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흡연($p<.01$)과 커피 섭취($p<.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섯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신념모델의 차이에서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자택에서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하숙, 자취,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익성, 장애성,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음주여부에 따라 음주를 하는 경우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운동 횟수에 따라서는 비교적 1주일 기준 운동 횟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여섯째, 피부 관리 행동에 따른 건강신념 모델의 차이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1) 피부 관리 관심 있는 학생들의 경우 민감성, 유익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편차적으로 민감성, 유익성, 자아효능감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p<.001$)

2) 피부 관리 방법에서는 민감성($p<.01$), 유익성($p<.05$), 자아효능감($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편차적으로 자아효능감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 관리실이나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경우 민감성, 자아효

능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p < .001$), 홈케어로 관리하는 경우 유익성에 있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5$).

3) 화장품 구매방법에서는 민감성, 유익성, 심각성, 자아 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p < .001$) 편차적으로 심각성과 자아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구매 횟수에서는 구매 횟수가 많을수록 민감성, 유익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p < .001$).

4) 피부 상담여부에서는 민감성, 자아 효능감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나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 상담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감성,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5) 피부 관리 의사 여부에서는 민감성, 유익성, 심각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피부에 대해 알아보고 피부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민감성, 유익성,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6) 피부 관리 교육의 필요성에서는 민감성, 유익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민감성과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일곱째, 건강신념 모델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민감성은 유익성, 장애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에서 상관관계를 보였고 유익성은 장애성, 심각성, 자아효능감에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장애성은 심각성에서에서 상관관계를 보였고 심각성에서는 자아효능감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피부 관리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하는 학생들의 피부 관리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피부

관리에 대한 유익성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피부에 대한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이 높았으며 피부 건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여고생의 아름다운 피부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지역별 고등학교를 균형 있게 선택하여 반복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 2) 여자 고등학교 만이 아니라 남자 고등학교도 선택하여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 3)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고등학생들의 피부 관리 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좀 더 다양하게 포함하여 분석 연구를 해 볼 것을 제언한다.
- 4)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교육 방식과 교육 행동에 대해 미치는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 연구를 해 볼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1. 채효숙 2001. 건강신념모델을 이용한 대학생의 음주 관련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지연옥 1988. 금연을 위한 교육 방법별 접근이 흡연 행위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근교지역의 군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3. 김보경 2007. 자가 미용교육 프로그램이 여성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박사논문.
4. 박현진 2009. 성인 남성의 피부 지식과 화장품 구매 성향에 따른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김숙은 2006. 성인 남성의 피부 지식과 피부 건강 관리 행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김세진 2008.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남자대학생의 콘돔사용 예측요인.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7. 최은영 1998. 건강증진 모델에 기초한 여성의 피부 미용 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이소정 2008. 20-30대의 여성의 미용 관심도와 변화 수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이주희 2006. 여고생의 생활 습관에 따른 피부상태 연구. 남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이은숙 2009. 세안 교육프로그램이 여중생들의 피부관리 실천행위와 피부상태에 미치는 효과.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대학 석사학위논문.
11. 김향숙 2007. 실업계 고등학교의 건강증진 행위 및 피부 건강 관리 인식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양미영 2009. 수면 및 식습관이 여성의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원 보건 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신진영 2009. 메디컬 스킨케어의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전용수 2007. 미용교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정신 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 : 청각 장애 여성과 정신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정은숙 2005. 피부미용 교육 프로그램이 피부에 대한 지식·자외선·태도·행위에 미치는 효과.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이소정 2008. 20~30대 여성의 미용 관심도와 변화 수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이혜원 2009. 여성들의 피부 관리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명은진 2001. 20~30대 여성의 피부 건강 관리에 대한 지식 및 행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정원정 1999. 여대생들의 피부 유형에 따른 식이섭취실태조사 및 혈장 생화학적성분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 강영미 1999. 중년여성의 골다공증에 관한 지식,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1. 구미옥 1992. 당뇨병 환자의 자기간호행위와 대사조절에 관한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2. 김민희 2000. 비만 아동들의 자기 건강증진행위와 자기효능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 김복자 2001. 청소년의 음주행위 및 관련요인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 김은숙 1986. 건강신념과 치주질환에 대한 예방적 건강행위이행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 남영희 1997. 관상동맥질환의 건강신념 및 자기효능감과 운동 및 식이요법 이행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김미라 2006. 청소년기의 여드름에 대한 관리 방법과 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향장미용전공 석사학위논문.
27. 신주영 1999. 자기효능 정보자원 프로그램이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지각된 자기효능감과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 이순례 2006. 청소년기의 여드름의 임상양상과 피부 건강 행위: 남녀 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장경자 1982.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 미치는 요인발견을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0. 최정희 2000. 여대생의 건강증진행위와 자기효능과의 관계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 김희진 2010. 청소년의 외모 관심도와 만족도에 따른 미용형태와 미의식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석사학위논문.
32. 김명숙. 피부비만학. 현문사. 2003
33. 김기연, 고혜정, 김광옥, 김연주, 장문정. 피부 관리학 I. 수문사. 1997
34. 김향숙. 오정숙 2007. 고등학생의 건강증진 행위 및 피부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 대한 피부 미용학회지 201~210 page
35. 오수정, 강수경 2010. 남,여 학생의 피부 유형과 피부 관리 태도 비교. 대한 피부 미용학회지 149~158 page
36. 김광옥, 차영애 1999. 청소년의 여드름과 정서상태와의 관련성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369~384 page

37. 임미옥, 오경현 2011.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이 미용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25~39 page
37. Bandura, A: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1986,84, p.191-215
38. Becker, M. H: The health belief model and sick role behavior,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ersonal health behavior. Charles B. Slack, New Jersey. 1974, p82-92
39. Kasl, S.V. and Cobb. S : Health behavior, illness behavior and sick role behavior Arch, Environ. Health I , 12 : 246-266 Feb, 1966 and II 12 : 534-541 April, 1966
40. Rosenstock, I. M : The health Belief model : Explaining health behavior through expectancies Is health behavior &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 Practice. San Francisco, CA:Jossey-Bass Publishers. 1990;p39-62
41. Stillman, M. J : Woman's health belief about cancer and breast self - examination. Nursing Research. 26(2) : 121-127,1977.

ABSTRACT

An Analysis on the Health Belief Model base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kin Care related factors

Shin Ji-hyun

Skincaer and Obesity management Major

Departmen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timing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of 17~19 age group is very noticeable in the changes in their physical, mental growth they go through taking interest in and experiencing susceptible physiological changes to their changing appearance. Their skin condition during the time can be worsen by skin disease such as acne, etc by excessive sex hormone and sebum secretion, and they may conduct mistaken skin treatment following the indiscriminate skin information on mass media and internet without knowing their skin condition properly.

So, Set up of skin care habits and management of healthy and effective skin condition suitable to their skin condition, those female high school students need en education to have attitude and behavior for keeping skin health aided by more upping, specialized and subdivided accurate knowledge.

Hereupon,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with the help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the way of analyzing their preference for skin care & the factors related with their skin care behavior aided by HBM to identify the right way of skin care and to use it as a basic data for skin care education.

400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ttending a female high school in Seoul were randomly chosen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Data from self administered survey were collected from 2010 Sep 1 to Sep 10, and then 389 data copies out of 400 were selected for an analysis.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th frequent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independent sample, ANOVA, correlat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statistical methods.

Following are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First, 304 students(82.4%)turned out to be interested in skin care, and their interest appeared the higher inversely to their grade($p<.05$)

Second, regarding their skin care behavior, the largest number of them 196 (53.1%)showed 'direct purchase' in cosmetic purchase, followed by 'purchase by parents132 (35.8%)' proving most of them purchase cosmetic themselves.

The largest number of students responded as 1~2 times a year139(37.7%) as their cosmetic purchase frequency.

Third, 288 students (78.0%) showed that they never have had skin

care consultation, but 320 students (86.7%) wanted to care their skin and most of them wanted so to relieve skin trouble while 135 students (36.6%), quite a high percentage, said that skin care is essential to keep skin healthy state.

Fourth, the relation between the health belief variables perceived by the subjects on skin care showed pure relation such as susceptibility with benefit, barrier, severity, self-efficacy, and benefit with barrier, severity, self-efficacy, and barrier with severity, and severity with self-efficacy.

Fifth, the inquiry into any differences in health belief model depending on skin care behavior showed that the higher the susceptibility, benefit, severity, self efficacy and the lower the barrier were, the higher their interest in skin care and skin care behavior were.

Sixth,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one to fine out any variables affecting the subjects' concern for skin care, have or not have care intention, and the necessity of skin care education showed that the higher susceptibility (7.153 times) goes with a high intention to do skin care, and the higher the susceptibility (2.025 times), barrier (0.575 times), severity (1.607 times) agreed on the necessity of skin care educ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e need of skin care education program

able to raise the benefit and self efficacy of the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increasing their interest in the knowledge of skin care and effective skin care, and if schools teach female students systematic skin care methods through CA hours, they would be able to maintain healthy skin.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건강신념모델을 이용한 고등학생의 피부 관리 관련 교과과정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을 위한 설문 조사서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개인적 응답이니 조사 결과는 학술적인 목적 이 외에는 활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잘 활용하여 가치 있는 학술적 연구결과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9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지도교수 : 안 홍 석 교수님

연구자 : 신 지 현

각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을 직접 가입하거나 v표 해 주십시오.

1. 평소에 피부 관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 본인의 피부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세안 후 당긴다. ② 세안 후 유분감이 있다.
③ 트러블이 있다. ④ 모세혈관이 확장 되어 있다.
⑤ 모공이 넓다. ⑥ 피부가 칙칙하다.

3. 평소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①전문 관리실 ②병. 의원 ③홈 케어 ④화장품 구입 시 서비스 ⑤안한다.

4. 본인의 화장품 구매는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직접 구매 한다. ② 부모님이 구매 한다.
③ 친구한테 선물 받는다. ④ 주위에서 권유하는 제품으로 구매 한다.

5. 화장품 구매 횟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구매를 안 한다. ② 년1회~2회 ③ 년3회 ~4회
④ 년5회~6회 ⑤ 년6회 이상

6.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안제는 무엇입니까?

- ① 클렌징 폼 ② 클렌징 젤 ③ 클렌징 오일 ④ 클렌징 로션
⑤ 클렌징크림 ⑥ 비누

다음은 피부 관리에 대한 민감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신 후 V표 해 주십시오.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피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2	나는 잦은 스트레스로 인해 피부 문제가 발생되기 쉽다.					
3	현재 피부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한다.					
4	나는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함으로 인해 피부에 문제가 발생되기 쉽다.					
5	나는 잘못된 세안 습관으로 피부에 문제가 발생되기 쉽다.					

다음은 피부 관리에 대한 유익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신 후 V표 해 주십시오.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명확한 피부상태 파악 및 관리를 하면 피부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명확한 피부상태 파악 및 관리를 하면 피부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3	명확한 피부상태 파악 및 관리를 하면 자신감이 부여될 것이라 생각한다.					
4	명확한 피부상태 파악 및 관리를 하면 피부가 툇이 맑아질 거라 생각된다.					

다음은 피부 관리에 대한 장애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신 후 V표 해 주십시오.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명확한 피부상태 파악 및 관리를 하면 피부 관리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 된다.					
2	명확한 피부상태 파악 및 관리를 하면 피부 관리에 대한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3	명확한 피부상태 파악 및 관리를 하면 피부 관리 하는 동안 시간적인 부담이 든다.					
4	피부 관리보다 우선순위의 할 일이 많다.					

다음은 잘못된 피부 관리에 대한 심각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신 후 V표 해 주십시오.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잘못된 피부 관리가 오래 진행될 경우 장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잘못된 피부 관리가 오래 진행 될 경우 자신감이 저하될 것이다.					
3	잘못된 피부 관리로 인해 신체적(활동제한)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4	잘못된 피부 관리로 인해 심리적(불안, 우울, 두려움)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은 피부 관리에 대한 당신의 자아효능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신 후 V표 해주십시오.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이나 친구 도움 없이도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별할 수 있다.					
2	피부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3	얼굴 세안 시 모든 부위를 꼼꼼하게 헹구어 낸다.					
4	피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 패턴에 신경을 쓴다.					
5	피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환경오염에 노출을 피한다.					
6	피부 건강을 위해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는 편이다.					
7	피부 건강을 위해 자극 적인 음식은 되도록 삼간다.					
8	건강한 신체와 외모를 위해 꾸준한 운동을 한다.					